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별책 부록: 친구들 · 2008년 4월호

# 리아호나

표지 이야기:

## 가족 생활의 미, 26쪽

쿡 장로를 만나다, 16쪽

음악의 힘, 30, 36쪽, 친8쪽

*1995년에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선지자들이 교회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언급해왔던 교리와 관습을 재천명하는 "가족: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각 개인이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으며, 가족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26쪽 참조.*

KOREAN
4 15022 84320 5
02284 320

2008년 4월호, 제45권, 제4호
리아호나 02284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게리 제이 콜먼, 요시히꼬 기꾸찌, 제럴드 엔 런드, 더블류 더글라스 셤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네흐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이담 시 올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탭:** 크리스티 반즈, 린다 스탈 쿠퍼,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라렌 포터 곤트, 캐리 카스텐, 제니퍼 맨디,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샐리 제이 오데커크, 주디스 엠 팔러, 비비안 폴슨, 조슈아 제이 퍼키, 킴벌리 리드, 리차드 엠 롬니, 돈 엘 설,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렐
**선임 비서:** 로렐 튜셔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탭:** 캘리 알 아로요, 콜레트 네베커 오운,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렛, 토마스 에스 치일드, 레지날드 제이 크리스턴슨,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비, 지니 제이 닐슨, 랜달 제이 픽스톤
**사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위크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권: 제505호, 제45권, 제4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8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 윤 환
편집인: 박 승 호
번역 책임자: 박 환 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판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몰몬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라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랜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그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08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April 2008 Vol. 32 No. 4.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 리아호나, 2008년 4월호

**2** 영원히 가치있는 보물

**8** 속죄와 신앙

**16**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36** 찬송가의 치유하는 힘

**표지**
앞: 삽화: 에스터 차이, 복사 금지.
뒤: 사진 촬영: 존 룩크

**친구들 표지**
삽화: 딜린 마쉬

### 성인

2 제일회장단 메시지: 영원히 가치있는 보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8 속죄와 신앙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
16 쿠엔틴 엘 쿡 장로: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25 방문 교육 메시지: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26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36 찬송가의 치유하는 힘
44 후기 성도의 소리
마침내 내 어머니가 알고 싶어했다 *트래저 엘더 바퍼스*
그녀가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나? *토마스 이 홀레처*
내가 가버나움에서 그리스도를 찾은 방법 *제이슨 존스*
48 애독자 편지

###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가르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다음 제언들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과반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반원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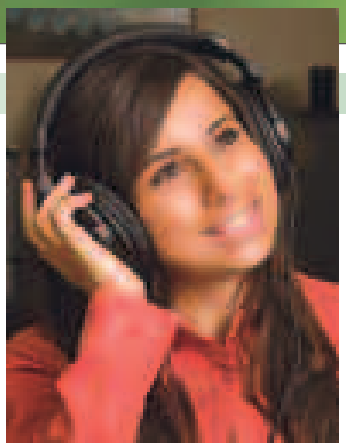
***"합당한 음악, 합당한 생각"***, 30쪽: 가족 구성원들이 찬송가나 초등회 노래를 한두 음, 또는 서너 음만 듣고 어떤 곡인지 알아맞히는 게임으로 시작한다. 전혀 짐작을 못한다면, 그 찬송가에 대해 약간의 힌트를 준다. 음악이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훌륭한 음악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지 토론한다. 이 기사를 활용하여, 어떻게 음악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을 조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좋아하는 찬송가의 가사를 외우도록 목표를 세운다.

***"성전 의식을 받도록 준비함"***, 40쪽: 쪽지에 달퀴스트 형제의 여덟 가지 제언을 적은 다음, 각 사람에게 하나씩 고르게 한다. 그 권고를 따르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곳에 서고 성전 의식을 받을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여자들: 월터 레인**

*미술가는 이름이 알려져 있든 알려져 있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어떤 여자들"의 충실함을 기리고 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더라"(누가복음 8:2~3)*



30 합당한 음악, 합당한 생각

## 청소년


14 새로운 눈으로
*앤지 벅스트롬 밀러*

22 질의응답: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적으로 위대한 교사였을 뿐 구주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다고 말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30 합당한 음악, 합당한 생각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40 성전 의식을 받도록 준비함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이세*


## 어린이: 친구들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세 개의 다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선지자의 말씀 따라 살리라
*린다 크리스턴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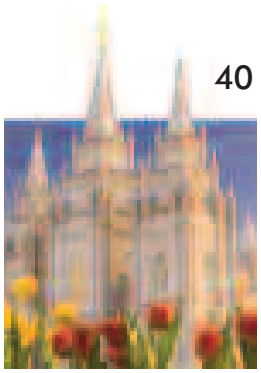
친6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첫번째 시현

친8 엄마의 노래 *쉐일라 킨드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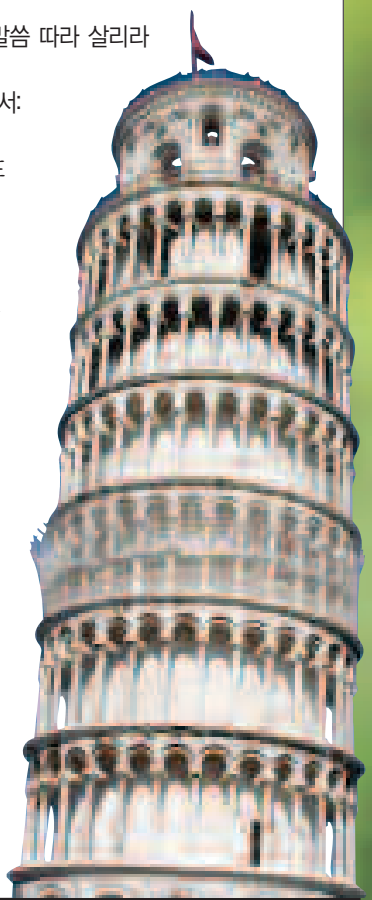
친10 노래: 내가 어린아이 였으면
*메이블 존스 카보트와 달윈 월포드*

친12 친구가 친구에게: 자족하는 것
*알랙산더 에이 오둠 장로*

친14 친구 사귀기: 꼿꼿이 섬
*제니퍼 메디*

40 성전 의식을 받도록 준비함



이번 호에 숨겨져 있는 핀란드어 정의반 반지를 찾으면서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을 선택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세요.

나누도록 권유한다. 토론을 보충하기 위해 이 기사의 발췌문을 활용한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가족이 실천할 원리를 선택한다.

***"엄마의 노래"*** 친8쪽: 이 이야기를 읽은 후, 가족에게 그들이 겁먹었던 때에 대해 나누도록 권유한다. 그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는다. 찬송가나 초등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토론한다. 가족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위안이나 힘이 필요할 때 떠올릴 노래를 선택한다.

***"자족하는 것"*** 친12쪽: 오둠 장로의 부친이 가족들이 배웠으면 했던 교훈을 나눈다. 자녀들이 자신이 받은 축복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 "감사 항아리"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본다. 가족에게 그들이 감사하는 것을 적거나 그리게 한 다음, 그 종이를 항아리에 넣게 한다. 자녀들에게 비물질적인 축복도 생각해보라고 권한다.

### 이번 호의 주제들

쪽수는 각 기사의 첫 쪽을 나타낸다.


친=친구들
가정 복음 교육, 2쪽
가정의 밤, 1, 26쪽
가족 선언문, 25, 26쪽
가족, 26쪽, 친12쪽
간증, 22쪽
개종, 44, 45쪽, 친12쪽
결혼, 25, 26쪽
경전 공부, 46쪽
만족, 친12쪽
모범, 친14쪽
방문 교육, 25쪽
사망, 44쪽
생각, 30쪽
선언문, 2쪽
선지자, 친4쪽
성신, 36쪽
성전, 40쪽
순종, 친12쪽
스미스, 조셉, 친6쪽
신앙, 22쪽, 친2, 친12쪽
예수 그리스도, 22쪽, 친10쪽
용서, 45쪽
위안, 36쪽, 친8쪽
유산, 2쪽
음악, 30, 36쪽, 친8쪽
의식, 40쪽
준비, 2, 40쪽
찬송가, 36쪽
첫번째 시현, 친6쪽
초등회, 친4쪽
쿡, 쿠엔틴 엘, 16쪽
희생, 2쪽


테두리 © Dynamic Graphics, Inc.

# 영원히 가치있는 보물

*주님은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부, 즉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내세의 영원한 행복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저는 어렸을 때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지은 *보물섬*을 즐겨 읽었습니다. 또한 모험에 관련된 영화도 보곤 했는데 그곳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각각 나누어 갖고 있는 낡은 지도 조각을 찾아서 맞추기만 하면 보물이 묻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오후만 되면 *잭 암스트롱, 더 올 아메리칸 보이*라는 15분짜리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던 일을 기억합니다. 시작할 때 라디오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흘러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잭과 베티와 함께 보물이 숨겨져 있는 신비롭고 전설적인 코끼리 무덤 입구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그 길에는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저를 이 프로그램에서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숨겨진 보물을 찾는 탐색대를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전혀 다른 곳에서 세상의 구주께서는 보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산상수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1]

약속된 상은 상아나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넓은 땅도 아니었으며 증권이나 주식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부, 즉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내세의 영원한 행복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줄 세 조각의 보물 지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로부터 배우십시오.
2. 미래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3.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지도의 각 조각을 살펴봅시다.

## 과거로부터 배우십시오

우리는 개척자 조상으로부터든 나중에 개종한 사람으로부터든 아니면 우리의 삶을 가다듬도록 도움을 준 사람으로부터든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유산은 희생과 신앙으로 이루어진 기초입니다. 그러한 굳건하고 안전한 기초 위에 쌓아가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1974년 *뉴이라(New Era)*에는 1888년에 열다섯 살의 나이로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벤자민 랜다트에 대한 카렌 놀렌의 글이 실렸습니다. 유타 북부의 한 농장에서 그는

산상수훈, 칼 하인리히 블로흐, 덴마크 힐리로드 프레데릭스보르그 소재 국립 역사 박물관 제공, 복사 금지; 사진 촬영: BUSATH PHOTOGRPHY

> *"인생에서 매일매일이 특별한 때입니다. 매일, 매시, 매분이 특별합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일곱 명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이올린을 연습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어 때로는 힘이 들었습니다. 이따금씩 어머니는 그가 농장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할 때까지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어 자물쇠로 채워 버렸습니다. 벤자민은 그것을 연주하고 싶은 큰 유혹을 느끼곤 했습니다.

1892년이 저물어 갈 무렵 벤자민은 유타 지역의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하는 오디션을 위해 솔트레이크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꿈을 실현 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몇 주 동안 연습과 기도를 한 후에 그는 1893년 3월에 커다란 기대를 안고 솔트레이크로 갔습니다. 지휘자인 딘 씨는 벤자민의 연주를 듣고는 자신이 덴버 서부 지역에서 들어본 가장 훌륭한 연주였다고 했습니다. 벤자민은 가을에 덴버로 가서 리허설을 하라는 제안을 받았으며, 그렇게만 하면 경비는 물론 집에 보낼 수 있는 약간의 돈까지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감독은 벤자민을 불러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것을 2년 정도 연기할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감독은 벤자민에게 돈벌이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빚진 것이 있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들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벤자민은 유타 지역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할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독에게 선교사 비용을 마련할 방법만 있다면 부름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벤자민이 선교사 부름에 대해 말했을 때 어머니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부친이 늘 선교 사업을 하고 싶어했지만 그러한 기회가 오기 전에 살해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어머니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벤자민은 어머니에게 더 이상 땅을 팔도록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들의 얼굴을 살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하다. 우리 집에는 너를 선교사로 보낼 만큼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 하나 있단다. 아무래도 네가 바이올린을 팔아야겠구나."

엿새 후인, 1893년 3월 23일에 벤자민은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케이스에서 바이올린을 꺼냈다. 하루 종일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했다. 저녁이 되어 빛이 희미해지자 나는 더 이상 연주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악기를 다시 케이스에 집어넣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내일 선교사로 떠난다."

45년 후인, 1938년 6월 23일에 벤자민은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생애에서 내린 가장 큰 결정은 참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분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2]

과거로부터 배우십시오.

사진 촬영: 크레이그 디몬드

**미래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면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결코 꿈도 꾸지 못했던 세상에서의 이러한 발전, 즉 격변하는 세상에 대처해야 합니다.

주님의 다음과 같은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 하지 않게 되리라."[3] 두려움은 발전에 있어 치명적인 적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목표가 없이는 진정한 성공도 없습니다. 성공에 관해 제가 들은 가장 훌륭한 정의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공이란 훌륭한 이상에 대한 점진적인 실현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목표를 갖지 않을 때의 문제는 인생의 운동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데 시간을 사용하지만 결코 결승점에 이르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래 전에,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진다. 단지 계속 소망하라, 그러면 걱정이 사라지리라"[4]는 가사의 낭만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소망이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는 철저한 준비로 대치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는 힘든 노력이지만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미래를 향한 우리의 여행이 이곳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저 평탄하기만한 고속도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길에는 기로와 갈림길이 있을 것이며 예상하지 못한 충격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 각자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기도드려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때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오늘의 시간을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허비합니다. 과거의 백일몽과 미래에 대한 기대는 위안이 될 수는 있지만 현재의 삶을 대신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날이며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메리디스 윌슨의 *더 뮤직 맨(The Music Man)*에서 해롤드 힐 교수는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항상 미래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과거가 공허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무엇인가 하지 않는다면 기억할 내일은 없으며, 오늘을 가장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미루지 않도록 합시다.

저는 어떤 사람이 아내가 죽은 직후에 그녀의 옷장 서랍에서 9년 전에 그들이 미국 동부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녀가 구입했던 옷을 발견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입지 않고 특별한 때를 위해 보관해 두었습니다. 물론 그 특별한 때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아내의 남편은 이 일을 친구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때를 위해 무언가를 보관해 두지 말게. 인생에서 매일매일이 특별한 때일세."

그 친구는 나중에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가장 중요한 일을 더 이상 미루지 않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매일 크리스털 잔을 사용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고 싶으면 그것을 입고 슈퍼마켓에라도 갑니다. '언젠가' 혹은 '어느 날엔가'라는 말을 저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을 내어 친척과 친한 친구들을 방문합니다. 옛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에 있었던 말다툼에 대해 화해를 청합니다. 저는 가족에게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우리 생활에 웃음과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미루거나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는 자신에게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매시, 매분이 특별합니다."

아더 고든은 이러한 철학에 대한 훌륭한 예를 몇해 전에 한 유명한 잡지를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열세 살, 그리고 동생이 열 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서커스 구경을 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점심 때 전화가 걸려왔다. 시내에 아버지가 해야 할 급한 일이 생긴 것이다. 우리는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갈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기다리셔야 겠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식탁으로 돌아오시자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서커스는 다음에 또 올 텐데요, 뭐.'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5]

전에 칠십인 제일정원회에 있었던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님은 어린 시절의 어느 여름 날, 유타 주 랜돌프에 있던 집 뒷마당의 커다란 나무 위에 동생 맥스와 함께 오두막을 짓기로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생애에서 가장 훌륭한 창조물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모아 오두막을 짓기에 이상적인 곳으로 생각되는 장소로 그것들을 운반했습니다. 그것은 힘든 일이었으며 그들은 일을 마칠 수 있기를 고대했습니다. 완성된 오두막에 대한 생각은 그들에게 일을 완성시키겠다는 놀라운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여름 내내 일을 했으며 가을 신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드디어 그 집을 완성시켰습니다. 브러프 장로님은 그들이 일한 결과를 즐길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과 만족감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오두막에 앉아 잠시 주변을 살펴보고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취한 일은 참으로 훌륭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관심을 단 하루도 붙들어 두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경험한 지속적인 만족과 기쁨은 완성된 작업이 아니라 설계하고, 재료를 수집하고, 집을 짓는 등의 일을 하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브러프 장로님과 그의 동생 맥스가 과정을 통해 기쁨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즐기고 기쁨을 찾도록 합시다.

>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격언은 우리가 가족과 친구에게 말과 행동으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할 때 더욱 중요합니다.***

###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격언은 우리가 가족과 친구에게 말과 행동으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할 때 더욱 중요합니다. 작가 해리엣 비처 스토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덤에서 흘리는 가장 비통한 눈물은 하지 못한 말과 하지 못한 행동 때문이다."[6]

어느 시인은 영원히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슬픔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끝도 없이 커다란 이 도시에*
*길모퉁이를 돌면 친구가 살고 있네*
*하루가 가고, 한 주가 가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 년이 갔네*
*그동안 나는 친구의 얼굴을 못 보았네*
*인생은 화살 같고 무서운 경주와 같으니*
*내일은 오고 내일은 또 가버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네.*

*바로 길모퉁이!–그러나 몇 마일 떨어져 있네.*
*"선생님, 전보요,"*
*"짐 오늘 사망."*

사진 촬영: 프랭크 헬름리치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얻는 것은 결국 그것뿐*
*길모퉁이에 가버린 친구가 있네.*[7]

시의 내용에 따라, 저는 여러 해 전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한 친구를 찾아보는 일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한 친구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봅 비거스와 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 갈 무렵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 소재한 미 해군 훈련소의 기밀 부서에 있을 때 만났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친해졌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기 전에 한 번 솔트레이크를 방문했으며 1946년, 제가 제대한 이후로는 편지로만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제 아내 프란세스와 저는 매년 봅과 그의 아내 그레이스와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았습니다.

드디어 2002년 1월 초에 저는 비거스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휘터를 방문하여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할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는 80세가 된 친구 봅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 날들을 회상할 수 있도록 아내와 함께 그와 그레이스를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방문은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저는 해군에 있을 때 함께 찍은 55년 전의 사진 몇 장을 갖고 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근황에 관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봅은 우리 교회의 회원은 아니었지만 오래 전 샌디에이고에 머물러 있을 때 성찬식에 참석했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아내와 제가 봅과 그레이스에게 작별을 고할 때, 저는 오랜 세월을 두고 소중하게 여겨온 친구를 다시 한번 보기 위해 우리가 기울인 노력에 대해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미루지 맙시다.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보물 지도의 세 조각이 이제 한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우십시오. 미래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말씀을 시작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구주이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8]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면서 이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가족 구성원들에게 행사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묻는다. 그들은 얼마나 미리 준비하는가?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둠으로써 영생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마태복음 6장 19~21절을 읽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차례로 이 메시지의 각 부분을 읽도록 권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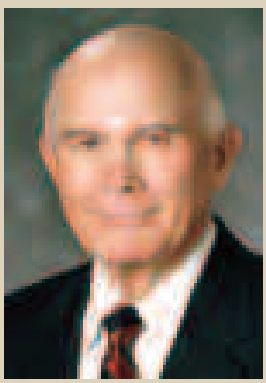
2. "과거로부터 배우십시오"라는 소제목 아래의 첫 번째 단락을 읽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나 경험에 대해 나누도록 권유한다.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는 한 가지 방법임을 간증한다.

3. "현재에 충실하십시오"라는 소제목 아래의 이야기 가운데 한두 가지를 나눈다. 각 가족 구성원에게 그동안 미루어 온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한다. 다음 달에, 여러분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경험에 대해 말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주**

1. 마태복음 6:19~21.
2. "Benjamin: Son of the Right Hand", *New Era*, 1974년 5월호, 34~37쪽 참조.
3. 교리와 성약 38:30.
4. "Wishing(Will Make It So)", B. G. DeSylva 작.
5. *A Touch of Wonder*(1974년), 77~78쪽.
6. Gorton Carruth와 Eugene Ehrlich에서 편집, *The Harper Book of American Quotations*(1988년), 173쪽.
7. Charles Hanson Towne, "Around the Corner", Poems That Touch the Heart 편집, A. L. Alexander(1941년), 1쪽.
8. 마태복음 6:19~21.

# 속죄와 신앙



*그분의 면전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우리는 깨끗함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죄를 범한 도덕적으로 나약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거할 수 있는 높은 영성을 지닌 강한 사람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선지자 몰몬은 그러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백성으로 헤아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모로나이서 7:39 참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출애굽기 20:3)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구주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을 가지며 주님을 우리 생활의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이 강력한 개념은 단순하게 보이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전에서는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온다고 가르칩니다.(로마서 10:17 참조) 경전을 통해,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고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분의 독생자이며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명을 가르칩니다. 그러한 진리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기초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신뢰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은 곧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시간에 대한 온전한 신뢰 없이 주님에 대해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 신앙으로 주님의 뜻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는 듯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것은 언제나 하늘의 질서, 즉 주님의 선하심과 뜻과 지혜와 시간을 전제로 합니다. 주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과 신뢰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전과 평화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우리의 모범은 최근에 인기를 끄는 스포츠계의 영웅이나 연예계의 스타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재산은 우리에게 한시적인 것에 집중함으로써 영원한 것들을 잊게 만드는 값비싼

겟세마네의 그리스도, 허먼리하 호프만 작, C. HARRISON CONROY CO.의 허락을 받아 게재. 배경 © SCOT PRO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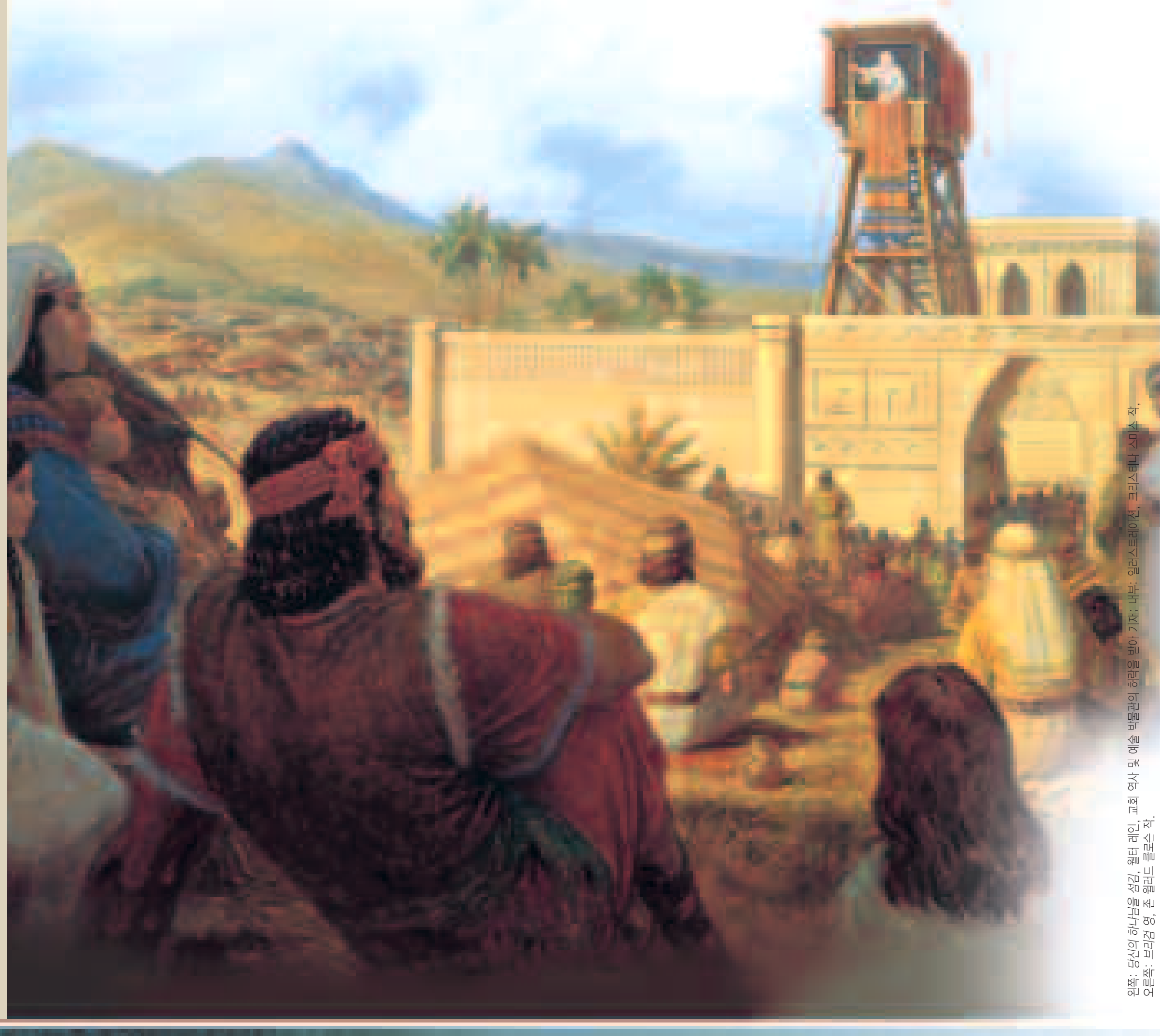
**베**냐민 왕의 백성들은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한다는 말로 그들의 크나큰 변화를 묘사했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변화를 마음에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장난감이나 오락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범이자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 간증해야 하며 우리의 생활에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서로 가르쳐야 합니다.

### 구주는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십니다

브리검 영(1801~1877) 회장님은 우리가 따르는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악마의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조직하시는 반면 악마는 전적으로 파괴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1] 이러한 대조는 실제로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니파이후서 2:11)을 보여 주는 중요한 예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약하게 하시지



왼쪽: *당신의 하나님을 섬김*, 월터 레인, 교회 역사 및 예술 박물관의 허락을 받아 기재; 내부: 일러스트레이션, 크리스티나 스미스 작,
오른쪽: *브리검 영*, 존 윌러드 클로슨 작.

않으신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예가 지니는 힘을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데 적용해야 하며 여기에는 우리의 오락과 여가도 포함됩니다. 우리들의 인기를 얻어 유명해진 세상의 책과 잡지와 영화, 텔레비전, 그리고 음악의 주제들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택한 매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화시킵니까, 아니면 약화시킵니까?

살아오면서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화하고 고상하게 하는 오락이 점점 더 음울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며 파괴적인 형태의 공연과 오락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조에 담긴 강력한 개념은 무엇이든 사람들을 강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사람들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선택과 생각과 바람을 통해 주님 또는 사탄의 뜻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함으로써, 우리는 선한 것을 지지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기억하고, 주님 즉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고통을 당하셨고 모범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기뻐하실 만한 방법으로 행하겠다는 동기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 고통을 느끼는 것은 회개의 일부입니다

온 인류의 부활과 더불어 구주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이며 가장 강력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의 삶에서 속죄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이해에 있어 근간이 되는 것은 공의와 자비와 속죄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이 신성한 과정에서 고통과 회개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 회개는 모든 경륜의 시대에 주어진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오는 공의의 무서운 요구, 즉 경전에 묘사된 비참함과 끝없는 고통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중단되고 제거될 수 있습니다. 한편에 위치한 공의와 속죄의 관계와 다른 한편에 위치한 자비와 속죄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 핵심 개념입니다.

몰몬경은 구주께서 죄 가운데 구속하시지는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악인은 사망의 줄이 풀리는 것 이외에는, 마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같이 그대로 있게 되리니"(앨마서 11:41) 구주께서는 회개의 조건 하에, 사람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속하십니다.(힐라맨서 5:11 참조)

회개의 조건 중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며, 여기에는 그분의 속죄 희생에 대한 믿음과 의존이 포함됩니다. 앰율레크가 가르친 것처럼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공의의 요구의 온 율법에 드러나게 되나니, 그러므로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만 크고도 영원한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지느니라."(앨마서 34:16) 이는 분명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는 사람은 모든 벌을 구주께서 대신 받으셨으므로 전혀 고통을 받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구주의 다른 가르침들과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 ***브리검 영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과 악마의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조직하시는 반면 악마는 전적으로 파괴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앨마서 34장 16절은 회개하는 자는 구주께서 그 죄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만큼 고통을 받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들의 회개와 구주의 속죄로 인해, 구주께서 감내하신 것과 같은 격렬하고 극심한 고통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에 대해 참으로 폭넓은 가르침을 주셨던 스펜서 더블류 킴볼(1895~1985) 회장님은 개인적인 고통이 회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 강한 고통을 겪기 전까지는 회개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는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2]

구주께서는 그분의 대속을 위한 희생이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닌 모든 자를 위하여 율법의 목적에 부응하시나니, 그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율법의 목적이 부응될 수 없느니라"(니파이후서 2:7)고 말씀하시며 이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라는 이사야 1장 18절의 약속은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심령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죄인은 죄에 대한 개인적인 고통과 괴로움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 사람은 오직 진정으로 회개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앨마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앨마 이세는 확실하게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모사이야서 27장과 앨마서 36장에 나오는 그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킴볼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단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슬픔과 후회를 표현한 것만으로 자신들이 회개를 했고 용서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3]

개인적인 고통을 수반하며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고린도후서 7:10)은 몰몬이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죄 중에서 행복을 취함을 항상 용납하지 아니하려 하심으로 인한 정죄 받은 자들의 슬퍼함"(몰몬서 2:13)이라고 묘사한 것과 같이,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겪는 안이하고 비교적 고통 없는 슬픔 또는 잘못 때문에 겪는 슬픔과는 크게 다릅니다.

**우리는 크나큰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심각한 범법을 회개하는 과정에서 왜 고통을 겪는 일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씻는 것을 회개의 결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견해는 불완전합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바람이 불 때 쉽게 휘어지는 나무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이 나무는 너무나 깊게 땅바닥으로 구부러져서 죄를 짓듯 잎사귀가 진흙으로 뒤덮입니다. 우리가 잎을 씻어내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나무의 약한 속성, 즉 구부러지고 잎사귀를 더럽히는 일은 거듭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죄로 더럽혀진 사실을 단지 슬퍼하기만 하는 사람은 다음에 강한 바람이 불 때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쉽게 반복되는 일은 나무가 강화되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사람이 경전에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을 겪고 나면, 구주께서는 그 사람을 단순히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강화되는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코너스톤 스튜디오

것은 우리가 죄를 씻는 목적 즉,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분의 면전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우리는 깨끗함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죄를 범한 도덕적으로 나약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거할 수 있는 높은 영성을 지닌 강한 사람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어야]"(모사이야서 3:19)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전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그 죄를 버린다(교리와 성약 58:43)고 설명하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은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에는 개인의 궁극적인 변화가 수반됩니다.

베냐민 왕의 백성들은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모사이야서 5:2) 한다는 말로 그러한 크나큰 변화를 묘사했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변화를 마음에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힘과 영적인 성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 받음이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모든 경륜의 시대에 주어진 메시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제3니파이 27:13)이라고 부르신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니파이인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그 계명은 이것이라, 너희 땅의 모든 끝이여,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성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 없이 서도록 하라."(제3니파이 27:20)

현대의 계시를 통해 주님은 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성신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죄 사함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물로 침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내가 있는 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교리와 성약 84:74)

### 용서는 확실합니다

저는 희망의 메시지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참되지만, 특히 회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회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므로]"(로마서 3:23)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회개는 가능하며, 그런 후에 용서는 확실합니다.

킴볼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때때로 죄의식 때문에 회개하려는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죄의 추악함과 가증함을 보고는 절망하여 '과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실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이 심히 낙담하고 가망이 없다고 느낄 때, 그리고 무력감 속에서 하나님께 신앙으로 간곡히 자비를 간구할 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는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가 마음속에 메아리쳐 올 것이다."[4]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의 공덕으로 우리 마음에서 죄책감을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공덕으로 우리 마음에서 죄책감을 제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소중한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됩니다.(앨마서 24:10 참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라는 이사야 1장 18절의 약속은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 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42)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께 이 말씀들이 참되며,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이고,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며,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선지자에 대해 간증드리고,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이 후기에 회복된 복음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

*2001년 6월 유타 주 프로보에서 열린 선교부 회장들을 위한 세미나 말씀에서 발췌함.*

**주**

1. *Discourses of Brigham Young*, 존 에이 윗소 편집(1954), 69쪽.
2. *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에드워드 케이 킴볼 편집(1982), 88, 99쪽.
3. *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87쪽.
4. *용서가 낳는 기적*(1969), 307쪽.

# 새로운 눈으로

*신기하게도 내 멍든 눈 덕분에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

**앤지 벅스트롬 밀러**

"못 봐주겠어" 나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거울 속에 보이는 오른쪽 눈은 평소 그대로였다. 하지만 왼쪽 눈은 여지껏 본 적이 없는 심한 멍이 들어 있었다.

"그렇게 심한 건 아냐. 진짜로." 친구인 에밀리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멍들지 않은 눈으로 친구를 흘겨보고는 다시 얼음주머니를 가져다 댔다.

불과 5분 전에 친구인 제나가 팔꿈치로 우연히, 그러나 정확하게 내 왼쪽 눈을 쳤다. 즉시 나는 양손을 눈으로 가져가며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제나는 사과했다. 내가 괜찮은지 보려고 모여드는 친구들의 소리가 들렸다.

아픔을 느끼는 동안에도 나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 내가 손을 내리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숨을 들이켰다.

"왜들 그래?" 내가 물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나는 거울로 달려갔다. 맞은 지 몇 초 지났을 뿐인데 내 눈 주변의 피부는 평소보다 네 배나 부어 있었고 선홍색의 피멍까지 들어 있었다.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지?" 나는 제나의 손에서 얼음주머니를 쥐어 들며 말했다. 제나는 입술을 깨물며 거의 백 번 넘게 사과를 했다. 나는 눈에 얼음주머니를 단단히 대고 다음날 아침이면 멍이 사라지기를 바랐다.

운이 없게도 다음날 아침 부기만 조금 가라앉았을 뿐 눈 주변의 선홍색 멍은 이제 자주색으로 변해 있었다. 내 모습은 흉했고 기분은 더 끔찍했다.

눈 주변을 화장으로 가려 보려 했지만 그럴수록 멍 자국은 더 보랏빛으로 보였다. 부기를 가릴 다른 방도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간신히 시야를 확보할 만큼만 눈을 내놓고 모자를 최대한 눌러썼다.

그날 학교에서 모두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아무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며칠 동안이나 친구들이 내 기분을 바꿔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일요일이 되자 교회에 모자를 쓰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러나 주일학교 공과를 들으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속죄와 개인적인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던 교사가 이렇게 말씀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는 멍 자국을 만지며 생각했다. "나를 흉하게 눈에 멍이 든 소녀로 보시겠지." 하지만 내가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일을 멈추자 나의 관점이 바뀌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의문이 떠올랐다.

그분이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나에 대해 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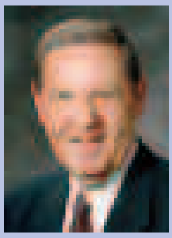
계신 사랑을 생각하니 눈에 눈물이 차 올랐다. “그분은 나를 당신의 아들의 목숨만큼이나 가치 있는 딸로 보신다.”는 깨달음이 왔다.

나는 하나님의 딸인 나의 영혼이 지니는 위대한 가치에 대해 성신이 증거하시는 것을 느꼈다. 세미나리에서 배웠던 경전 구절이 떠올랐다. 나는 경전을 펴고 사무엘상 16장 7절을 찾았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겉으로 보이는 나의 모습은 내면의 내가 누구인가 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방안을 둘러보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큰 사랑을 느끼자 나의 마음가짐은 또 한번 달라졌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온기가 나를 가득 채웠고 잠시 동안 나는 내 반 친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시는 방식으로, 즉 그분의 자녀들로 보았던 것 같다.

안식일의 남은 시간 동안 나는 평온과 위안을 느꼈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사랑했으며 그들과 눈을 마주쳤다. 양쪽 눈으로 말이다. ■

일러스트레이션: 줄리 로저스



## 영혼에 깊이 새겨진 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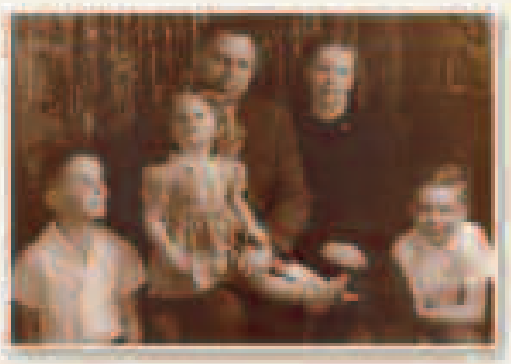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하늘 부모님의 영의 자녀이며 성스러운 성품과 영원한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진리는 여러분의 영혼 깊이 새겨져 여러분이 성숙한 여성으로 자라는 동안 내리게 되는 모든 결정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품위, 가치, 특권, 그리고 약속을 뒷받침하는 이보다 더 큰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희망과 꿈을 아시며 여러분의 두려움과 좌절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이 가진 신앙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도 아십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청녀들에게”,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28쪽.**

# 쿠엔틴 엘 쿡 장로

##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유타 주 로건의 한 초등학교에서 소방 방재 훈련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6학년 회장으로 충실하게 봉사하던 조 쿡은 소방 방재 단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대피 시간에 대해 신기록을 세우리라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윽고 화재 경보가 울리자, 학생들은 일사불란하게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조는 흐뭇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신기록을 세워야지. 우리는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거야' 라고 어린 조는 생각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승리가 손끝에 닿으려는 순간,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건물 안에 아직 사람이 있습니다. 대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기록의 꿈은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조 쿡은 1학년 학생 한 명이 건물에서 뒤늦게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다름아닌 조의 남동생 쿠엔틴이었습니다. 조는 동생 때문에 캐시 밸리 역사 속에 영원히 기억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조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도대체 뭘 꾸물거리고 있었던 거야!"

쿠엔틴은 낡고 커다란 부츠 한 켤레를 보여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피터[가명]가 가끔 자기 발보다 훨씬 큰 신발을 물려받아서 신는 거 알지?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그 친구가 재빨리 뛰어 나가느라 부츠가 벗겨져 버렸어. 소방 훈련을 망칠까 봐 그냥 맨발로 뛰어 나갔을 거야. 그 친구가 눈 속에서 발이 시려울까 봐 내가 부츠를 가져다주려고 돌아갔었어."

이 감동적인 일화는 쿠엔틴 라마 쿡 장로님이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셨는지, 구주께서 가르치신 원리에 얼마나 충실하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유년 시절의 친구이자 훗날 선교사 동반자가 된 리 버크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쿠엔틴을 평생 동안 알아 왔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나 가족, 또는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쿠엔틴의 사랑하는 어머니 버니스는 어린 쿠엔틴의 운명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어머니의 축복사의 축복문에는 그녀의 아들들이 가족에게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며" "주님의 대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들들은 참으로 그렇게 살아 왔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 받은 쿠엔틴 엘 쿡 장로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사진 : 스티브 바스케즈; 왼쪽 페이지 및 본 쪽 왼쪽 위 사진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오른쪽: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와 그들의 전직 선교부 회장이자 칠십인이셨던 매리온 디 행크스 장로와 함께. 맞은편, 위로부터: 가족과 함께한 여덟 살 때의 쿠엔틴 쿡(왼쪽), 19세 때와 3세 때.*

**타인의 모범에서 배움**

1940년 9월 8일 유타 주 로건에서 제이 버논과 버니스 킴볼 쿡 사이에 태어난 쿠엔틴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쿡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는 세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가치 있는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칙은 우리가 선택한 목표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향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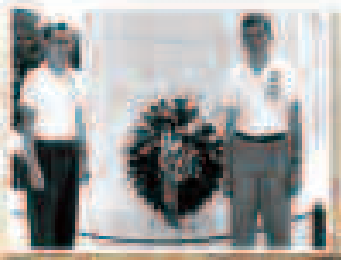
쿠엔틴은 아버지와 자주 대화를 나누며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가장 좋은 점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만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라고 쿡 장로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 곁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로건에서 성장한 장로님은 그러한 기회가 많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쿡 장로님은 현재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신 엘 톰 페리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후 고향에 돌아와 성찬식에서 말씀하셨던 경험담을 지금까지도 기억하십니다. 그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장로님의 유년 시절을 장식하는 가장 생생한 추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청년이 된 쿡 장로님은 스포츠를 사랑했습니다. 그분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농구 팀과 미식축구 팀이 주 챔피언 결정전에서 입상하는 데 쿡 장로님도 한몫하셨습니다. 그분의 관심사에는 토론과 정치도 포함됩니다. 쿡 장로님은 열여섯 살 때 두 명의 주 대표 중 하나로 선발되어 전국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당시와 훗날의 미합중국 대통령들을 만났습니다. 드와이트 디 아이젠하워와 존 에프 케네디, 린든 비 존슨, 리처드 엠 닉슨, 제럴드 알 포드가 입법 절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본 쿡 장로님은 깊은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의 경험은 쿡 장로님이 훗날 법조인의 꿈을 키우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교 사업을 나가기 전에 유타 주립 대학교를 다니던 쿡 장로님은 친구인 더블류 롤프 커와 함께 학생회 임원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롤프 장로님은 훗날 칠십인 제일정원회로 부름을 받으셨고 현재는 교회 교육 기구의 교육 총감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쿡 장로님은 1960년부터 1962년까지 영국 선교부에서 봉사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곳에서 선교 사업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당시에 칠십인 제일정원회의 일원이셨던 저희의 선교부 회장님인 매리온 디 행스 장로님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모든 선교사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과 결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행스 장로님은 저희에게



구주를 사랑하고 몰몬경을 소중히 여기며 교회와 복음에 평생토록 진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45년여가 지난 지금, 한때 선교사 동반자였던 두 사람이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함께 봉사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장로님에게 모범을 보여 준 수많은 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쿡 장로님은 그들 중 대부분이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았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그저 선한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교리에서 배울 수도 있고 훌륭한 모범을 통해 배울 수도 있습니다." 쿡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나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치는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조합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총관리 역원이거나 어떤 명망있는 직업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의 영향력**

쿡 장로님은 평생 동안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중 그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바로 가족들입니다.

장로님은 사랑이 넘치고 가정적이셨던 아버지와 어머니께 무척 감사해 하십니다. "그분들은 구주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쿡 장로님은 또한 형 조와 누이 수잔의 사랑과 지지에 감사해 합니다.

장로님의 인생에서 중요한 경험 한 가지는 그분이 열다섯 살이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형은 선교 사업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아버지는 여전히 올바른 분이셨지만 교회 활동에 흥미를 잃고 계셨고, 그래서 조가 의과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버지를 무척 존경했던 조와 쿠엔틴은 아버지의 조언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둘만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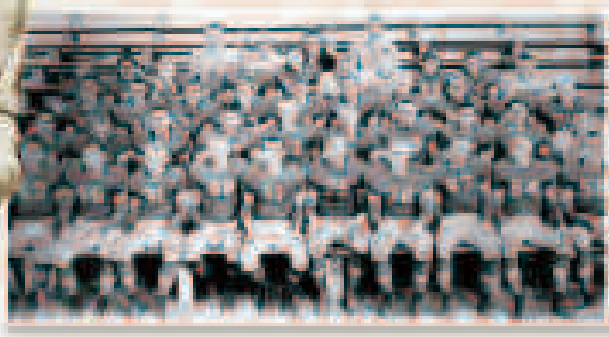
두 형제는 각 선택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고려하며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만약 이 교회가 그저 또 하나의 훌륭한 조직에 불과하다면 조는 의과 대학에 감으로써 사람들에게 더욱 큰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구주께서 진실로 살아 계시고, 조셉 스미스가 진실로 선지자였으며,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주님께서 조직하신 참된 교회라면, 몰몬경이 참되다면, 그렇다면 조의 의무는 분명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는 아버지에게 가서 그들이 논의한 것들을 말씀드렸고 간증을 나눴습니다. 이윽고 그는 아버지의 지지와 어머니의 기쁨에 찬 축복을 받으며 선교 사업을 떠났습니다.

형과 나누었던 그 대화는 어린 쿠엔틴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구주에 대한 간증은 언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다섯 살 소년에게 조셉 스미스와 교회와 몰몬경 등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믿고는 있었지만 그것들의 확실한 실재를 확인해 주는 영적인 증거는 아직 받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조와 대화를 나눈 쿠엔틴은 방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형이 받았던 것과 동일한 증거를, 바로 온 마음을 다해 열망했던 증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가 받은 증거는 너무나도 강력하여 그가 가졌던 모든 의심을 영원히 씻어 버렸습니다.

**존경스런 메리**

쿡 장로님의 삶에 또 하나의 커다란 영향력은 그분의 아내 메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녀만큼 선하고 의로우며



행복한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녀에게는 풍부한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라고 장로님은 말씀하십니다.

쿡 장로님의 딸인 캐서린 쿡 나이트 자매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완벽한 아버지셨어요. 저는 그분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는 거의 성인에 가까우시지요."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쿡 자매님은 음악을 가르치셨으며 가정을 음악으로 채우셨습니다. 실제로 쿡 장로님이 메리 자매님을 처음 알게 된 것도 중학교 1학년 재능 발표회에서였습니다. 장로님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십니다. "연한 금발 머리의 한 소녀가 일어나더니 '햇살이 비치는 거리에서'를 불렀습니다. 아직 중학생밖에 안 되었지만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깊고 풍부한 목소리를 갖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그 노래를 주제가로 삼기에도 손색이 없었답니다. 그녀는 참으로 행복하고 밝은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동안 둘은 여러 번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장로님은 학생회 회장으로, 자매님은 학생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은 토론 팀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후 장로님이 고등학교 졸업반에서 전교 회장이 되었을 때에도 자매님은 학생회 임원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쿡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회상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녀와 사랑에 빠지기 전부터 이미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결혼은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쿡 장로님과 자매님은 1962년 11월 30일에 유타 주 로건 성전에서 결혼 서약을 맺으셨습니다.

###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사랑함

1963년에 유타 주립 대학을 졸업하며 정치학 학위를 받은 후 쿠엔틴과 메리는 캘리포니아로 이사했습니다. 1966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쿡 장로님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카, 맥클러란, 잉거솔, 톰슨 앤 혼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쿡 장로님은 그곳에서 "내가 믿는 바를 남들에게 거리낌없이 알리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쿡 장로님의 전문 분야였던 상법과 의료 복지법에 관련된 업계에서 장로님은 학력이 매우 높은 부유층 사람들과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쿡 장로님의 아들 래리는 아버지가 직장 동료들과 지역 사회 인사들 사이에서 크게 존경 받는다는 사실에 감명 받았던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법률 회사를 그만두실 때와 그 후 의료 복지 업계의 기관장직에서 퇴직하실 때 아버지의 퇴임을 기념하는 만찬 행사에 참석했었습니다. 교회 회원이 아니었던 수많은 동료들이 하나 둘씩 아버지가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그들을 이끌고 가르쳐 주셨는지, 자신의 시간과 힘을 뺏기는 것을

*쿡 장로와 자매가 상법 및 의료복지법에 관련된 일을 했던 캘리포니아에서 가족(왼쪽과 아래)을 양육함. 위: 수터 의료 경영 동료인 반 존슨과 함께. 맞은편: 고등학교 재학 중 쿡 장로는 보이즈 네이션(역자주: 11학년 소년을 위해 미주 지역에서 주최하는 연례 훈련 행사. 미 연방 정부의 사안 진행에 대한 위임을 이 행사를 통해 가르친다.)에 선출되었고, 그곳에서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하는 일을 도왔다. 그는 또한 학교 농구와 미식축구 팀에서 활약했다.*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의 일을 사심없이 도와 주셨는지에 대해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무척 놀랐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장로님은 교회 부름을 통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화적 배경과 경제적 능력을 가진 교회 회원들과 소중한 만남을 키워나가셨습니다. 쿡 장로님은 직장과 교회에서 사회 각층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지혜를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만인에 대한 사랑도 자라났습니다.

쿠엔틴 엘 쿡 장로님은 감독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후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스테이크 회장은 그분의 사랑하는 형인 조였답니다!)와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셨습니다. 당시 장로님의 스테이크에는 영어뿐 아니라 스페인어, 통가어, 사모아어, 타갈로그어, 북경어와 광동어를 사용하는 와드와 지부도 있었습니다.

어떤 회원들은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쿡 장로님은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쿡 장로님은 감독단에서 함께 봉사했던 한 형제를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내가 아는 가장 훌륭한 사람 중 한 명"인 그분은 빵을 배달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분은 와드 지도자들이 서류 가방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자신도 무언가 한 가지를 가져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져올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신 사람들에게 나눠 줄 빵 반죽으로 가방을 채웠습니다.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이 겸손한 분의 마음에는 오직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넘쳤던 것입니다.

"제가 훌륭한 사람들에게서 배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직업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배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나 훌륭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으며, 그들 모두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준비됨**

쿡 장로님과 메리 자매님의 세 자녀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랐습니다. 쿡 장로님은 직장과 교회 부름 때문에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도 항상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정원에서 일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혹은 야외에서 함께 무엇을 하든지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도 미덕이 적용되는 것을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쿡 장로님의 둘째 아들 조는 그저 가르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몸소 실천하는 사랑의 모범을 기억합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에 진학한 조가 첫 학기 시험을 마치고 샌프란시스코까지 운전해서 돌아와야 했을 때, 조는 자신을 걱정하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당시는 12월 말이었고, 길에는 눈이 쌓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는 이제 막 시험을 마쳤기 때문에 피곤했을 것입니다. 학기가 끝났을 무렵, 조는 그의 기숙사 문을 노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 밖에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로 날아온 그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조는 그것이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강력한 사랑 표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조는 여러 가지 복음 원리에 대한 토론과 구주에 대한 간증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젊은 시절의 조로 하여금 갖고자 하는 간증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미래에 어떤 아버지가 될 것인지에 관한 비전을 보여 주었다고 회상합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쿡 장로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스스로의 행동과 활동을 평가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쿡 장로님의 가족들은 함께 복음에 초점을 맞춘 목표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쿡

장로님은 가족이 함께 가족 기도, 가족 경전 공부, 규칙적인 가정의 밤과 같은 종교적 가르침을 적절히 실천한다면 자녀들은 어느 곳에서나 의롭게 자랄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다.

그 열쇠는 바로 사적이고도 개인적으로 행하는 종교적인 습관이라고 쿡 장로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방문 옆을 지나면서 그들이 경전을 공부하거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는 것은 아버지인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종교 습관은 "여러분 가족의 종교적 습관이 자녀에게 직업과 교육 등의 다른 모든 인생의 목표보다 구주에 대한 간증을 갖고 의롭게 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때" 더 잘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봉사하기 위해 준비함**

캘리포니아에서의 30년 동안, 쿡 장로는 직장 생활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러 중책들을 맡으셨습니다. 그분은 법률 회사에서 동료로 일을 시작하여 동업자로, 경영을 맡는 동업자로 승진했으며, 그 후에는 그가 부회장을 역임했던 수터 헬스와 합병된 캘리포니아 헬스케어 시스템의 회장 및 CEO를 역임하셨습니다.

그 당시 장로님은 지역 대표와 지역 관리 역원으로 봉사하고 계셨으며 1996년에는 칠십인 제이정원회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는 제일정원회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총관리 역원으로서 쿡 장로는 필리핀 및 미크로네시아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셨고 교회의 태평양 도서 지역과 북 아메리카 북서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세계의 충실한 성도들에 대한 그의 사랑도 계속 커져갔습니다.

교회의 선교사부 집행 책임자로서 그분은 새로운 선교사 지침서인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집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쿡 장로님은 그 공로를 인정 받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주의 손이 바로 첫날부터 그 안에 임재했습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모든 분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공헌을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내 메리에 대해 쿡 장로는 "그녀와 결혼한 것은 제가 내린 결정 중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한다. 아래: 십이사도 정원회로 지지 받은 2007년 연차 대회 모임 후. 맞은편: 쿡 장로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

**준비되고 기꺼이 함**

쿡 장로님은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된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전생애 동안 계속된 비이기적인 봉사는 그분이 주님께 그의 마음과 기꺼이 하려는 마음을 바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저는 사도이셨던 모든 분들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미친 영향력은 심오합니다. 제가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조셉 스미스는 이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였으며 오늘날에도 선지자가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 지식이 제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쿠엔틴 엘 쿡 장로님이 사도직을 수행하시면서 그 지식이 계속되리란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

# 질의응답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적으로 위대한 교사였을 뿐 구주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다고 말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 리아호나의 대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간단히 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대한 도덕 교사였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그러나 또한, 그분이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경전을 믿고 있다는 것도 알려 주십시오. 여러분은 간증을 통해 평안과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십시오. 친구들도 원하기만 한다면 같은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을 확신시킬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유쾌한 마음으로 화제를 바꾸십시오.

그들이 진리를 알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의 간증은 그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그들에게 간증을 얻는 방법을 가르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경전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성신이 그들에게 진리를 계시할 수 있도록 배운 바에 대해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간증을 나눌 수 있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마태복음 3:17; 17:5; 제3니파이 11:7; 모세서 6:52, 57 참조).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 1820년에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주를 가리키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조셉 스미스-역사 1:17)고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2. 친구들이 예수께서 위대한 도덕 교사였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가르침과 간증을 살펴보도록 권유하십시오. 그분은 오직 구주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즉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한복음 11:25)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덕 교사가 되려면, 반드시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은 몸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제3니파이 9:15)

3. 선지자들 또한 구주에 대해 간증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태복음 16:16) 친구들에게 연차 대회 말씀을 듣도록 권유하거나, 2008년 3월호 *리아호나*를 주십시오. 그 잡지와 대회 말씀을 통해, 살아 계신 사도와 선지자들-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은 그분이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증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한지를

*친구들이 경전을 공부하고, 신앙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도록 노력함으로써 간증을 얻을 수 있게 격려하십시오.*

*친구들에게 구주에 대해 가르치고 증거하는 성구를 알려 주십시오.*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십시오."(신앙개조 제11조)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전하십시오.*

*교회의 DVD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음(물품번호 54041 320)은 배부 센터나 www.ldscatalog.co를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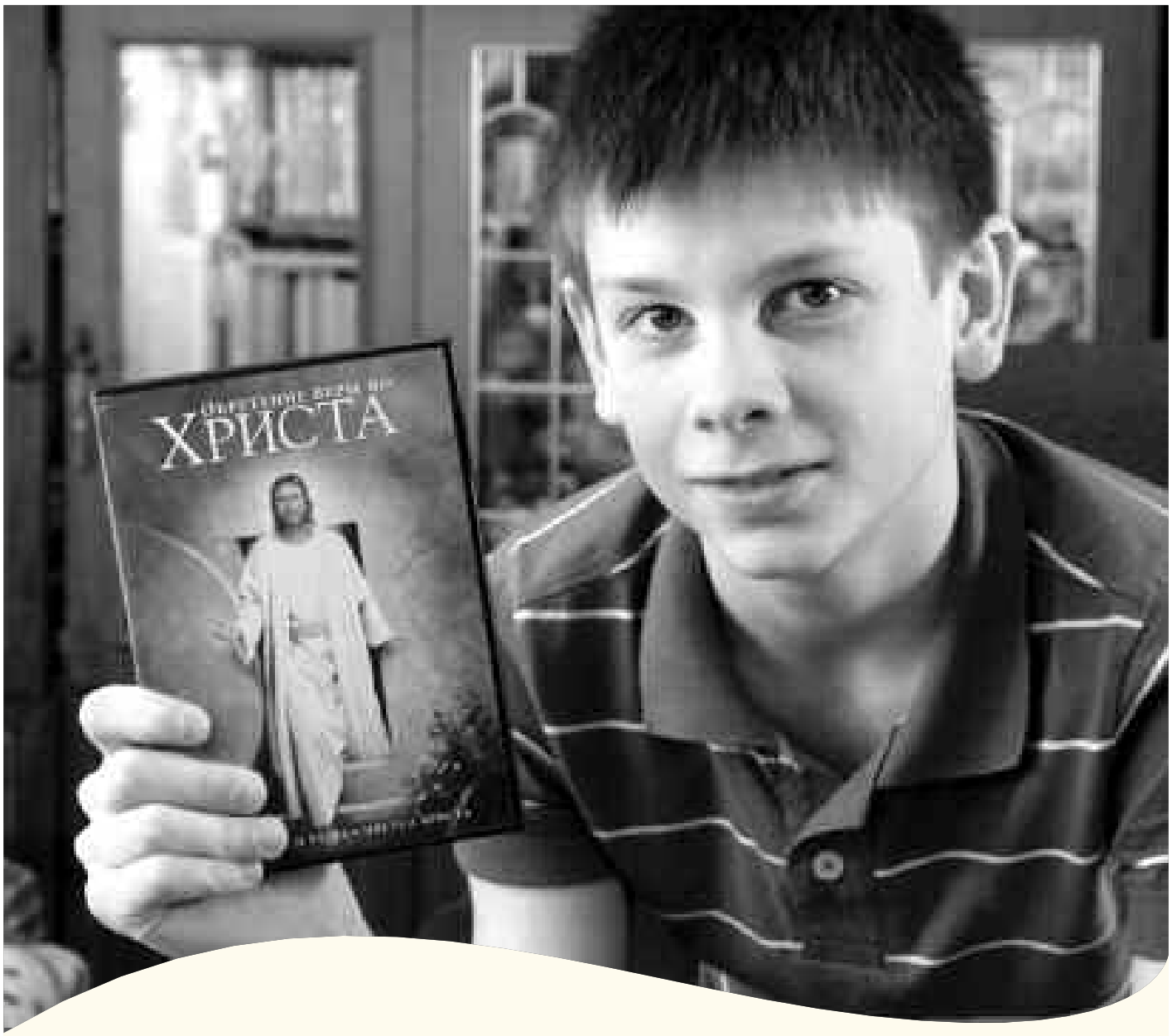



사진 촬영: 블라디미르 에고로프 모델이 포즈를 취함

친구들에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죄와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설명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속죄를 행하실 수 있었으며, 용서와 부활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다면, 우리는 이 생에서의 평안과 내세에서의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간증하십시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사도행전 4:12)

## 독자들의 대답

*저라면 친구들에게 예수께서 참으로 위대한 도덕 교사였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분이 가르치신 가장 위대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약속된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람이 위대한 도덕 교사가 될 수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분이 정직한 사람이었는지를 판단해야만 합니다. 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기도와 경전 공부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배웠으며, 제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해보도록 권유하겠습니다.*
제이콥 제이, 13세, 미국 애리조나 주

*한번은 친구들과 함께 있었는데, 한 친구가 자신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것을 아무것도 믿지 않으며 성경은 누구라도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라고 말했으며, 그때처럼 강하게 영을 느껴본 적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조용했습니다. 제 친구는 자신도 그와 같은 것을 알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간증을 얻는 방법을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손에 쓰이는 도구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간증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로라 알, 20세, 파라과이 아순시온

*그 친구에게 교회 DVD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찾음을 보여 주십시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분이 무한한 속죄를 행하셨음을 알게 되는 경우를 목격했습니다. 또한 간증을 나누십시오. 간증을 함으로써 성신을 통해 영적인 증거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훈레이 아다 장로, 22세, 필리핀 마닐라 선교부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구주라고 우기며 다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라면 예수께서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동시에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주실 것이며, 생각을 하고 필요한 말을 찾도록 영이 도와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히브리서 10:15~16; 제3니파이 28:11 참조)*

엘레나 에프, 19세, 러시아 울리아노브스크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것을 말하고 성경의 구절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두고 여러분의 간증이 약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코트니 시, 16세, 미국 애리조나 주

*저라면 논쟁을 하지 않고 구주에 대한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그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지를 모범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몰몬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도우십시오.*

크리스토퍼 에프, 18세, 칠레 탈라간테

"저는 그분이 진리의 교사임을, 그러나 단순한 교사 이상임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완전한 생활의 모범이 되시나 단순한 모범 이상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의사이시나 단순한 의사 이상입니다. 그분은 문자 그대로 세상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개인적인 영향력",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23쪽.

*구주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일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참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간증하십시오. 영은 그들에게 그분이 그리스도요, 세상의 구주이며 구속주라는 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은 사실 여러분의 간증일 것입니다.*

첼시 엔, 18세, 미국 네바다 주

*이곳에 실린 대답들은 도움을 주고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함일 뿐,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 다음 호 질문

***"저의 부모님은 교회의 활동 회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그분들의 도움 없이도 강하게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답변을 아래 주소로 2008년 5월 15일까지 보내 주세요:**

*Liahona*, Questions & Answers 3/08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이메일 혹은 편지에 다음 내용과 동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와드 (혹은 지부)

스테이크 (혹은 지방부)

*나는 답변과 사진을 인쇄하는 데 동의합니다.*

서명

부모 서명 (18세 미만인 경우)

모슨 황장 사진, BUSATH PHOTOGRAPHY 제공

#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선택한다. 교리에 대한 간증을 전한다.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들에게 그들이 느끼고 배운 것을 함께 나누도록 권유한다.*

**하나님께서는 왜 남녀간의 결혼을 제정하여 주셨나?**

***교리와 성약 49:16~17:*** "그들 둘이 한 몸을 이룸은 적법한 일이니, 이 모든 것은 땅이 그 창조의 목적에 부응하게 하려 함이요, 또 세상이 지음을 받기 전의 사람의 창조에 따라 그 수로 가득 차게 하려 함이니라."

***줄리 비 벡,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혼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천국 전쟁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 될 잠재력을 지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후기 성도 여성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섬",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10쪽)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두 가지 교리적인 이유로 우리는 영원한 결혼이 왜 아버지의 계획에서 필수적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유 1:** 남성과 여성에게 있는 영의 본질은 서로를 완전하게 해 주고 온전하게 해 주는 것이며,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승영을 향해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

*"**이유 2:** 신성한 계획에 따라 남자와 여자는 이 세상에 자녀를 데려와야 하며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데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남자와 여자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젊은 독신 남녀들이 우리가 보이는 개인적인 모범을 통해 올바른 결혼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젊은 남녀들이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합당함, 충실함, 희생과 성약을 존중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자신들의 구애와 결혼 관계에서도 똑같은 원리를 추구하려 할 것입니다. … 개인적인 모범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느 부분을 향상시켜야 할지 깨닫고 있습니까?"("결혼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서 필수적입니다", *리아호나*, 2006년 6월호, 51~52, 54쪽)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알 때 내가 지녀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결혼 생활을 강화할 … 행동들을 살펴봅시다. …

"*감사하다.* … 서로에게서 좋은 점을 찾고 진정으로 서로를 칭찬하십시오. …

"두 번째 제안은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으로, …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관찰하고, 이야기하고, 진정으로 상대의 말을 듣기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내야합니다. 그들은 공동 반려자로서 서로 도우면서 협력해야 합니다. …

"세 번째 제안은 *숙고*하는 것입니다. … 성전 의식에 자주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가족 경전 공부를 함으로써 결혼 생활이 발전하고 가족의 신앙이 강화됩니다." ("결혼 생활을 보살핌",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37~38쪽)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순종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며, 행복의 계획을 날날이 이해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이상적인 여건이 실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여러분은 이상적인 여건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현재의 여건에서 크게 성공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약속드립니다. 하나님의 딸이며 아들인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의 계획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따라 생활함",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75쪽) ■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테두리: 예수 그리스도 세부 내용, 해리 앤더슨

#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우리는 가족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임을 믿는다. 가족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예언적인 지침인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진리라고 주장하는 많은 궤변들에 대해, 표준과 가치에 관한 많은 속임수에 대해, 서서히 세상을 오염시키는 많은 유혹에 대해, 경고해야겠다고 생각해 왔으며 미리 경고합니다.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이 교회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이 역사를 통해 계속 반복하여 말씀해 왔던 가족에 관한 표준과 교리와 관습을 선언하고 재확인하기 위해 이제 교회와 세상에 한 선언문을 발표합니다."[1]

이 말씀과 더불어, 고든 비 힝클리 회장(1910~2008)은 1995년 9월 23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개최된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2]을 소개했다.

그는 이렇게 촉구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선언문을 신중하고 주의 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어느 나라든 그 힘의 근원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회원들에게 시간이 입증해 준 이러한 기치에 따라 가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3]

다음은 아시아인들의 모습이다. 그들의 문화는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자녀들이 가진 높은 표준"을 포함하는 "강하고 헌신적인 가족 관계"[4]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모습은 세계적인 후기 성도의 표상이며 가족 선언문에 나오는 중요한 가르침을 반영한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왼쪽 삽화: 레이첼 치아; 지도 © MOUNTAIN HIGH MAPS. 오른쪽 사진 촬영: 채승찬. 삽화: 미코 요시다; 테두리: CHINESE PATTERNS(1999년), SHAMBHALA PUBLICATIONS © PEPIN PUBLISHING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시편 127:3)이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도록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 가족의 축복은 가정의 밤으로부터 온다.

"후기 성도 청년 독신 여성인 저는, 6년 전에 동경으로 이사했습니다. 가정의 밤은 제가 복음 가족의 일부라는 느낌을 갖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가정의 밤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저는 홀로 매주 월요일마다 가정의 밤을 가졌습니다. 저는 경전을 읽었고, 일요일 공과를 준비하거나, 교회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와드는 일요일 모임이 끝나면 한 달에 한 번 독신 회원들이 그룹으로 가정의 밤을 갖습니다. 저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저는 자신들이 가진 교회 부름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서로를 알 기회가 없는 형제자매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테이크 내의 다른 한 와드에서는 독신 회원들이 매주 그룹으로 가정의 밤을 갖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선교사와 구도자들도 참석합니다. 매주 듣는 공과는 잘 준비되고 영적이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종종 저는 배운 것에 대해 생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한번 해볼 거야." 다과를 들면서 모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즐겁습니다.

"같은 신앙을 공유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제게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서 7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으므로 주가 그의 백성을 시온이라 불렀더라.'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때,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모임에 참석하는 각 사람의 신앙과 간증은 강화됩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저는 선지자와 계속되는 계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 가정의 밤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후기 성도 독신으로서 제가 가정의 밤을 통해 경험하고 배우는 것들은 제 자신의 가족을 갖게 될 때에도 제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미에코 타카하시, 일본 도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주**

1. "세상의 속임수에 굳건하게 맞섬",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100쪽.
2.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3.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101쪽.
4. "The Asians at Berkeley", Wall Street Journal, 1995년 5월 30일, A14쪽,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99쪽에서 인용.

왼쪽 사진 촬영: 이현규; 삽화: 안덕현; 오른쪽 삽화: 에스터 차이, 복사 금지

# 합당한 음악, 합당한 생각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살던 집 주위에는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과수원에 댈 물이 부족했습니다. 봄이면 늘 도랑을 치우지만 이내 잡초로 무성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과수원에 물을 대다가 문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도랑을 타고 내려가던 물이 잡초 때문에 사방으로 흘러넘쳤습니다. 저는 물웅덩이 속에서 둑을 쌓느라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한 곳을 메우면 다른 곳이 새었습니다. 한 이웃이 오더니 제가 하는 것을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힘차게 삽질을 몇 차례 하고 도랑을 치워서 물이 그 도랑으로 흐르게 했습니다. "물이 도랑을 따라 잘 흐르게 하려면 물길을 잡아 주어야 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생각도 물과 같이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필멸의 삶이 다할 때까지 여러분이 맞서게 될 가장 큰 목표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는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는 일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에 대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잠언 23: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은 자신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 마음은 무대와 같음

자신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면 습관, 곧 개인적인 악습까지도 고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얻고, 두려움을 이기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생각을 다스려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알려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이것에 관해 생각하다가 마음은 무대와

*생각도 물과 같이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면, 습관, 곧 개인적인 악습까지도 고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얻고, 두려움을 이기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스티브 반더슨, 표시된 부분 제외: 배경 사진 촬영: © GETTY IMAGES

*여러분은 시끄러운 현대 음악으로 마음을 채울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해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무대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와 연주를 하고 여러분의 행동이 그 생각에 따라 장단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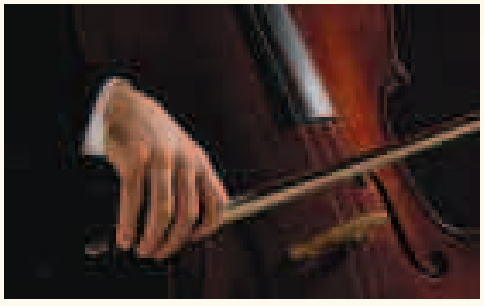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깨어 있는 동안 막은 열려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늘 무언가가 공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극일 수도 있고, 비극일 수도 있으며, 재미가 있든 없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마음의 무대에서는 늘 어떤 연극이 상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연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에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조그맣고 하잘것없는 생각이 살며시 기어들어와 여러분의 주의를 끌어당기는 것을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좋지 못한 생각은 모든 관객의 시선을 끌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덕스러운 모든 생각은 무대에서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에 동조하는 것이 되므로, 여러분은 악한 생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면 그것들은 마음의 무대에서 여러분이 허락하는 한 온갖 연극을 다할 것입니다. 그 주제는 질투와 증오와 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추하고 부도덕하고, 사악한 공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여 그것들이 무대를 차지하게 되면 그것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해 교묘한 회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정말 재미가 있고 그저 생각일 뿐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시키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더러운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의 무대를 지배하여 명령을 내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들이 대체로 깨끗해 보이든, 의심할 여지없이 불결한 것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깨끗하고 건전한 생각으로 채울 수 있다면 지금까지 존재하던 하잘것없는 생각들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어 떠나고 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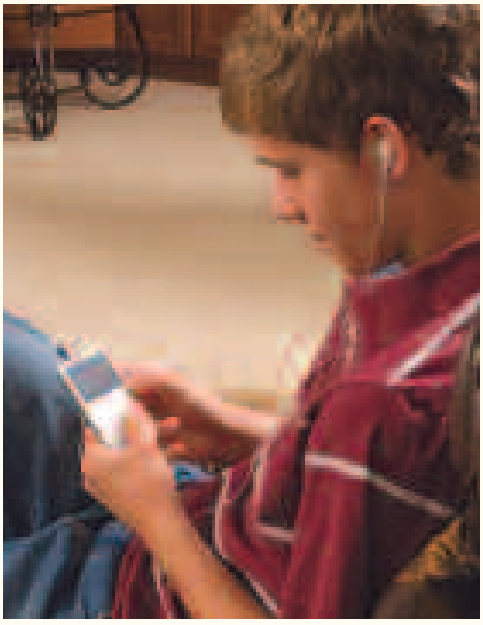
### 어떻게 생각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마음속을 합당한 생각으로 계속 채우기가 종종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돌아올 수 있는 은신처를 만들어 두었을 때 가능합니다. 저는 이러한 장소로

들어가는 길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 여러분께 그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음악, 즉 합당한 음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현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과 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의 하나입니다." 좋은 길로든지 나쁜 길로든지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의 무대에 오른 생각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노래가 영적으로 고무시켜 준다거나, 혹은 그 노래를 부를 때 자신이 더욱 고상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음악은 가치 있는 음악입니다. 단지 오락이나 기분 전환을 위한 음악이라도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음악으로 인해 육욕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바라게 되고, 불의한 욕망을 갖게 된다면, 그 음악은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항상 아름다운 것을 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더럽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자연계에서도 있으며, 문학, 연극, 미술, 그리고 음악 세계에서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 세기에 걸쳐, 좋지 못한 내용의 가사가 자극적인 가락에 맞추어 연주될 때, 그 노래는 인간을 타락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음악 그 자체도 연주 방식이나 박자, 강약에 따라 영성을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부지불식간에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주위 환경의 지배를 받기가 쉬워집니다. 인기 가수나 악단이 연주하는 음악들로 말미암아 현대는 질서보다는 동요를, 평온보다는 광란을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음악가는 공개적으로 불의한 생각과 행동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시끄러운 현대 음악으로 마음을 채울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해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무대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와 연주를 하고 여러분의 행동이 그 생각에 따라 장단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그러한 음악, 즉 단정치 못하고 불경하며, 부도덕과 탐닉에 둘러싸일 때 스스로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음악은 여러분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연주할 것을 엄선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음악을 선택하고, 좋지 못한 생각을 일으키는 음악은 버릴 것을 권합니다. 그러한 음악은 영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모든 현대 음악이 합당치 못한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대 음악에서도 인간에 대한 이해를 키워 주는 음악,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음악, 그리고 영성, 경건성, 행복, 심미감을 일깨워 주는 음악이 있습니다.

### 영감을 주는 음악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영혼이 마음의 노래를 기뻐함이라, 그러하도다. 의인의 노래는 내게 기도가 되나니, 그들의 머리 위에 축복으로 응답하리라."(교리와 성약 25:12) 교회의 제일회장단은 음악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음악을 통하여 언어의 경지를 넘어서서 미묘하고도 강력하게 자신을 표현해 낼 수 있습니다. 음악은 승화시키고 영감을 주는 데 사용될 수도 있으며, 저속함과 파괴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후기 성도는 항상 복음의 원리에 입각하고 영의 인도를 구하여 음악을 선정하고 그것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도록 해야 합니다."[1]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활동을 위해 계획하는 음악에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고문과 협의하여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적인 음악의 극단성과 더불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 간격이 벌어져 있는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기 위해 그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1871~1961년)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청소년에게 유익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지 못한다면 그들이 다른 그릇된 곳으로 가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그러한 유익하지 못한 것을 즐기도록 허용해 주거나, 마련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청소년을 위해 룰렛을 하도록 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실제로 도박장에 가지 않을까 염려하여 활동실에다 도박을 목적으로 룰렛 테이블을 마련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청소년에게 그렇게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청소년을 사로잡는 음악이나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굳게 서야 하며 여러분이 옳고 선하다고 알고 있는 것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음악이나 조명이 합당한 생각을 할 만한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할 때, 조명의 밝기를 더 밝게 하고 음악 소리를 낮추게 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또 여러분은 발표자나 청중이 다같이 높은 표준의 복장과 품행을 지키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재능을 발전시킬 것을 권합니다. 음악적인 재능을 지녔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음악이 작곡되어 연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음악도 마음을 고양시키고, 복음을 전파하며, 마음에 감동을 주고, 괴로운 심령에 힘과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고대나 현대에서 훌륭한 음악이 끼친 영향을 입증하는 예는 많습니다.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의 가사는 개척자들에게 역경에 맞설 용기를 주었으며, 절망이 사라지고 마음에는 평화가 가득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노래는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언젠가 저는 위험한 비행을 마치고 막 돌아온 비행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용기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온갖 위험을 어떻게 견뎌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살아 돌아올 희망이 거의 없을 때면 저는 그 노래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비행기의 엔진과도 같이 그 노래는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
*어서들 나가자*
*이 여행이*
*혹 힘들지라도*
*하나님 계시니*[2]

그는 이 노래에서 용기를 얻는 데 가장 필요한 신앙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큰 시험을 앞두고 음악의 힘을 통해 준비하셨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 산으로 가니라"(마가복음 14:26)

**좋아하는 찬송가를 선정하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이며, 예수님은 키를 잡고 서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며, 구주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선하고, 아름답고 영적인 것으로 항상 차고 넘치게 한다면 그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비행사인 제 친구가 했듯이, 영감을 느낄 수 있고 영혼을 고양시켜 주는 가사와 경건한 곡이 담긴 찬송가나 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할 만한 아름다운 노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영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노래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사를 외워 보십시오. 음악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간단한 노래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찬송가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이 노래가 여러분의 비상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무대로 좋지 않은 생각이 기어들어올 때는 언제든지 그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 노래가 여러분의 기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 음악은 고상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저속한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덕성은 더러운 것과 타협하지 않으므로 악이 빛 속에서 견디어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지 않아 콧노래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의롭고 가치 있는 것들에 열중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합당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생애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생에서 위대하고 영화로운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훌륭한 음악으로 저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영혼을 고양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1973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인용*

**주**

1. *신권 공보*, 1973년 8월, 3쪽.
2. *찬송가*, 16장.

***의롭고 가치 있는 것들에 열중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합당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생애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서부로의 여행, 해롤드 홀리스; 바이올린 연주자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모드

# 찬송가의 치유하는 힘

*교회 회원들이 시온의 찬송가가 자신들의 삶을 축복해 준 방법들을 나눈다.*

### 나는 그분의 사랑을 이해했다

살아 오면서 나는, 참된 것으로 알고 있던 원리들에서 멀리 떨어져 지냈던 때가 있었다. 이 때문에 나는 몹시 비참했다. 속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작용했다고 믿었지만, 나에게까지 효력을 미치기에는 내가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했다. 나는 구원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는 바로 이웃한 어느 기독 교회에서 찬송가 "오늘 네 집 떠나올 때 기도했느냐?"(*찬송가* 76장)를 연주하는 종소리를 들었다. 그 음악은 내 마음을 흔들었고,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영을 느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찬송가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이 나를 도와 주시리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음을 깨닫고는 그만 울고 말았다.

회개의 과정은 쉽지 않았으며, 나는 여러 번 낙담했다. 그러나 그 일요일 아침에 느꼈던 느낌은 계속 남아 있었으며, 시간이 흐른 뒤 나는 다시 완전히 활동화 되었고 텍사스 댈러스 성전에서 나 자신을 위한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지금도 그 찬송가를 들으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했던 분이 내가 받아들일 것을 알고 계셨던 방법으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감미로운 순간을 떠올린다.

*제시카 블레이클리, 미국 뉴멕시코 주*

### 우리는 영을 초대했다

남편과 나는 가족 경전 공부 시간에 영이 증대되기를 원했다. 우리는 당시 칠십인이었던 진 알 쿡 장로님이 가족 경전 공부를 하기 전에 찬송가를 부르도록 제안하신 것을 듣고 그 권고에 따르기로 했다. 물론 십대의 아들들은 이 의견에 대해 약간 반대했으나, 그들도 참여하기로 했다.

다음 날 나는 계획된 경전 읽기 시간 전에 30분 동안 스테레오로 찬송가를 틀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그 음악은 열세 살 된 우리 아들(처음에 우리의 제안을 가장 반대했었음)이 찬송가의 모든 절을 부르고 싶어하는 것은 물론, 다른 찬송가도 불러 보고 싶어할 정도로 그에게 감명을 주었다. 이제 그는 낙담하거나 유혹을 받을 때 찬송가에 의지한다.

우리는 찬송가를 가족 경전 공부 시간만이 아니라 가정의 밤과 일요일에도 활용한다.

*마시 오웬, 미국 유타 주*

### 어머니를 잃고서

86세 된 어머니의 건강이 여러 달째 악화되어 가자, 나는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을까 봐 두려웠다. 남편과 나는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130킬로미터 떨어진 릴까지 여행을 하기로 계획했으나 여동생 혼자 어머니를 돌보도록 놔두고 가는 것이 걱정되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떠나 있는 동안 모든 것이 잘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했다. 즉시, "잠잠하라"("주여 큰 폭풍우 일고", *찬송가* 59장)라는 가사가 마음에 떠올랐고 두려움이 사라졌다. 우리는 평온한 마음으로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떠났으며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사진 촬영: 조 로 그, 모델이 포즈를 취함

어머니를 돌봐 주시리라는 확신이 생겼다.

우리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얼마 후 동생이 내 남편, 이브스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도록 도우러 올 수 있는지 물었다. 남편이 동생의 집에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이 소식을 전화로 알리고 싶지 않은 남편은 나에게 동생이 무척 놀랐다고만 했다. 그는 나에게 곧 집으로 갈 테니 개인 소지품들을 챙겨두라고 했다.

나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한동안 동생과 함께 지내야 하나보다 하고 가방을 싸기 시작했다. 그런데 곧 영에 의해 가방을 쌀 필요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양육하는 힘**

*"찬송가는 영성, 계시, 및 개종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양육하는 찬송가들은 개종으로 인도하는 영을 불러들이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제이 이 젠슨 장로, 칠십인, "영적으로 양육하는 찬송가의 힘",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11, 12쪽.**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떠나기 전처럼 평안함을 느꼈다.

남편은 집에 와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려고 애썼다. 그가 애쓰는 것이 안쓰러워 나는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 계속 지탱해 나갔으며, 슬픔 가운데서도 동생을 위로해줄 수 있었다. 여러 차례 나는 평안을 얻기 위해 기도했으며,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확신을 얻었다. 신앙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스러운 찬송가가 "잠잠하라"고 환기시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니콜 제르미, 프랑스 파드칼레*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음**

오래 전에 나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계획했다. 나는 막 교회에 가입했고, 가족들은 새로운 종교에 대해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염려가 되었다. 내가 어머니를 할머니 댁에 모셔다 드릴 때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어머니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으며, 나는 어머니께 화를 내고 싶었다. 명절에 느끼던 들뜬 기분도 엉망이 되었다. 나는 조용히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나는 라디오를 켜고 영을 고양시키는 음악을 듣기 위해 늘 듣던 방송국 채널에 맞췄다. 그러나 그때 나는 라디오를 끄고 크리스마스 찬송가를 불러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렇게 했다. 어머니는 놀라셨지만 좀 더 조용해지셨다. 어머니는 심지어 캐럴 몇 곡을 따라 부르기까지 하셨다.

내 기분은 즉시 호전되었으며,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구주께서 어떻게 사심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는가를 생각하자, 내 문제는 작고 하잘것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많은 축복을 받았고 기뻐할 이유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성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며, 교회에 속하게 됨으로 받는 비판에 대해 평화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긍정적인 태도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결국 이것은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킴벌리 히르시, 미국 캘리포니아 주*

### 내 짐이 가벼워짐

1988년에 나는 사업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스테이크 회장님과 상담을 한 후, 아내와 나는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일을 찾아보기로 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음에도 우리에게는 고정된 수입이 없었고 이로 인해 아내와 나는 낙담하고 상심하게 되었다.

일년 후 우리의 재정은 거의 바닥이 났으며,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짐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우리에게는 선교사로 나가 있는 아들이 있었으며 집에는 여섯 명의 자녀가 더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다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

어느 날, 이런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때, 나는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곡조를 계속 흥얼거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곧 그것이 찬송가라는 것을 알았으며, 다음과 같은 가사를 생각해냈을 때 영이 나를 위로해 주었다.

*약한 자여 겸손하라 주가 인도하여 주리*
*간절한 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리*
(“약한 자여 겸손하라”, *찬송가* 85장)

나의 짐은 즉시 가벼워진 것 같았으며,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여러 해 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할 경우 우리의 결정을 인도하여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위안을 느꼈다.

우리는 새로운 고장으로 이사를 했으며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 가족은 집을 사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었다.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은 해결되었지만, 나는 아직도 찬송가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면 그것을 들으려고 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종종 성스러운 음악을 통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워렌 시 와셤, 미국 아이다호 주*

###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여러 해 전에 나의 모친은 음주 운전과 관련된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다. 나는 놀라서 비행기로 부모님의 집까지 가서 내 형제자매와 부상당한 부친과 함께 장례를 지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초등회 음악 지도자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준비를 하면서 나는 감정이 닫힌 것 같았고 내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초등회 음악 지도자는 열의에 차고 명랑해야 해”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슬픔만 느낄 뿐이었다. 나는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싶지만 그들을 낙담시킬 것 같았다. 내 마음은 슬픔으로 쓰라렸다. 나는 다시 행복할 수 있을지 의아 했으며 노래하고 싶은 마음까지 없어졌다.

내가 새로운 부름의 봉사를 시작하기 전날, 남편과 나는 인봉 받는 친구들과 함께 성전 의식에 참석했다. 의식이 시작되기 전에, 성전 직원은 개회 찬송, 기도, 말씀을 위해 우리를 성전 예배실로 초대했다. 우리가 “관대한 그 계명”(*찬송가* 81장)을 부를 때 그 찬송가 가사가 내 마음을 강하게 잡아 끌었다.

*무거운 짐 지고*
*어찌 수고하리*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
*편히 쉼 얻으리*

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느꼈으며 그곳,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서 “편히 쉼”을 얻었다. 4절에서 나는 나를 위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들었다.

*하나님 선하심*
*날마다 계시니*
*그 앞에 내 짐 부리고*
*기쁜 노래 하리*

그 순간 나는 비록 어머니를 잃었지만, 부름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구주께서 내 짐을 지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다. ■

*셰리 스트래트포드 에릭슨, 미국 아이다호 주*

# 성전 의식을 받도록 준비함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이세**
본부 청남 회장

제가 소년이었을 때 저는 저의 할아버지인 알랜더와 함께 근처에 있는 공동묘지로 산책을 가곤 했습니다. 저는 그 산책을 즐기는 것과 그곳에서 느낀 특별한 느낌들에 감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펜실베니아, 사스케하나 강의 제방을 따라 혼자 걸었습니다, 그곳은 1829년 어느 아름다운 봄날 아침에 침례 요한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아론 신권을 회복한 곳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있노라니, 다시 한 번 저는 제가 성스러운 땅 위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전 세계의 전쟁터와 다른 성스러운 장소들을 방문하면서 영원에 관련하여 비슷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들 각각의 장소에서는 필멸과 영원

사진 촬영: 크레이그 더몬드, 주석이 달린 부분 제외

*성전에 들어가 성전의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이의 휘장이 아주 얇은 것 같았습니다. 각 장소에는, 인생이 아기의 울음으로 시작되지 않고 필멸의 죽음으로 끝나지도 않으며 계속 이어진다는 영속적인 확신이 존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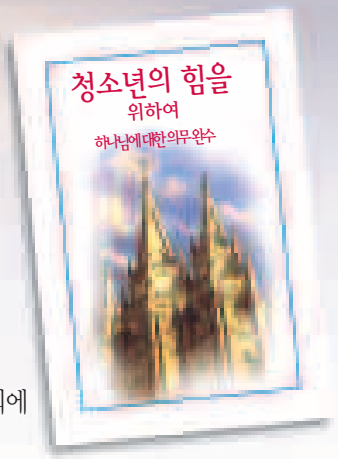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성전들 중 하나인 이 신성한 땅에 다시 섰으며, 다시 한 번 영원의 느낌을 매우 가까이 느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핀란드, 스위스, 홍콩 및 코스타리카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각각의 성전은 세상의 폭풍우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식처이자 피난처이며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강화되고 진리와 의를 위해 일어서도록 준비할 수 있는 평화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의 의식과 그분의 왕국의 영광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밝히시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장소"[1]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1910-2008) 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설득력을 동원하여 세상에 있는 우리 회원들에게 성전 추천서를 지니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추천서를 받고서 그것을 소중한 보물처럼 여기며, 주님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느낌과 축복들을 취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 드립니다."[2]

오늘날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 전 세계에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성전의 모든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12살이 될 때 여러분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함으로써 성전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전 바로 옆에 살든,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살든, 우리는 성전에 참여함으로써 오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매일 매일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제자들은 거룩한 곳에 서서 옮기우지 아니하리라"(45:32) 이것은 성전에 들어가 성전의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항상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팜플렛에 있는 표준대로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부정한 장소"를 피하십시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합당해야 합니다. 이 소책자에 나와있는 표준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현재 거룩한 곳에 서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혹 받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제일회장단의 보좌였던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1871~1961) 회장님이 십대 딸과 나누셨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딸이 무도회에 가기 위해 막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클라크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려무나. 자정까지는 돌아와야 한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고등학교 정식 무도회(프럼) 날 이예요, 무도회에 가서 다음날 새벽이나 되어야 돌아 온다고요." 클라크 회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맞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걸 나도 안단다. 하지만 자정까지는 꼭 돌아와야 해." 그녀는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저를 못 믿으시는군요!" 그가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옳지 못한 장소와 시간에 있을 때는 나 자신도 믿지 못한단다. 자정까지는 돌아오렴."[3]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은 비슷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곳이 영이 거할 수 있는 장소인가?" 그렇지 않다면, 용기를 내어 그곳을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방(벽에 걸린 사진들을 포함하여)이 영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바꾸십시오. 거룩한 곳에 서는 것과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일찍 배우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에 늘 합당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목표가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십시오.

**2** ***가족과 가깝게 지내고 가족이 강화되도록 도우십시오.*** 성전의 메시지는 가족, 곧 영원한 가족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거룩하고 활력이 넘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가족은 여러분에게 동반자 관계와 행복을 제공하고,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올바른 원리를 배울 수 있게 도우며, 여러분이 영생을 위해 준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가족 하나 하나가 모두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쾌활하고 도움을 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을 가지십시오. 놀려대거나, 싸우거나, 다투기보다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교회에서 가장 성스러운 구성 단위는 가족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4]

**3** ***경전 공부가 여러분 생활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정기적으로 읽을뿐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 경전에 의지하십시오.

제가 독일 북부 지역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있을 때 저는 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주 동안 답을 찾고자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몰몬경에서 니파이가 배를 지으라는 명을 받았던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또 나 니파이는 자주 산으로 들어갔으며, 주께

자주 기도하였나니, 그런고로 주께서는 내게 위대한 일들을 보여 주셨느니라"(니파이전서 18:3). 그 짧은 구절을 읽는 동안 다음과 같은 느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저는 깊이 생각하고 기도했으며 드디어 응답이 주어졌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경전을 연구하면서 찾아온 조그마한 영감의 통로에 감사드립니다. 응답을 받았을 때 저는 제가 "거룩한 곳에 서"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경전에 대해 연구하고 상고하며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여러분이 적정한 연령이 되면 세미나리에 참석하십시오.*** 저는 정기적인 세미나리 참석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며, 결정을 내릴 때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미나리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전 세계에 그들과 같이 거룩한 곳에 서고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5** ***여러분의 마음을 긍정적이고 깨끗하며 고양시키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저의 축복사의 축복은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위에서 비추는 빛을 바라보라, 너와 함께 가는 자들이 네가 좀더 높은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저의 초점을 위에서 비추는 빛에 맞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전, 시, 찬송가 및 기타 고양시키는 자료들을 외움으로써 저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불결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유혹을 받을 때, 그것들을 그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불결하고 순결치 못한 생각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6** ***여러분의 방에 성전 사진을 걸어놓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성전을 하나씩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아이들이 성전의 중요성과 성전에 들어가기에 늘 합당해야함의 중요성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그들이 선택한 성전 사진들을 아이들의 방에 걸어놓기 위해 구입했습니다. 날마다 성전 사진을 보며 그것을 이용해 성전에 가기 위한 합당성을 유지하겠다고 새롭게 다짐하는 것에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속한다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 여러분 자신의 사진을 성전 사진 옆에 걸어놓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7** ***여러분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와 아론 신권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프로그램을 갖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목적은 우리가 합당한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며, 성품과 삶의 지혜를 발전시키고, 가족을 강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구주와 같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8** ***여러분이 12세가 되면, 가능할 때마다 죽은자를 위한 대리 침례를 위해 성전에 참석하십시오.*** 우리는 124개의 성전이 전 세계에 퍼져있는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청소년 그룹이나 가족으로 성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여러분 가까이 있지 않다 해도 여러분은 성전에 관해 좀 더 배우고 성전 추천서를 항상 소지하기에 합당함으로써 성전의 축복들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부 회장이었을 때 우리 선교부 내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 선교사들은 선교 사업 기간 동안 성전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지니도록 격려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1994년 말에 하워드 더블류 헌터(1907~1995) 회장님께서는 성전까지의 거리가 멀어 곧바로 또는 자주 사용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성인 회원들이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도록 권고 하셨습니다.[5] 다음 번에 선교사들과 인터뷰를 하는 동안, 저는 이 원리를 가르쳤고 모든 선교사와 성전 추천서 접견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선교부와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이 내리게 될 모든 결정과 더불어 현재 거룩한 곳에 서서 주님의 성스러운 성전에 들어가기에 항상 합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노래 부르는 "거룩한 상속권을 지닌 청소년"[6]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시온 군대"입니다.[7]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 행하라고 명하신 훌륭한 "의의 행위"를 성취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준비하신 신성한 의식들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조셉 스미스*(2007년), 416쪽.
2. "Of Missions, Temples, and Stewardship," *리아호나*, 1996년 1월 51쪽.
3. *The Teachings of Harold B. Lee*,편. 클라이드 제이. 윌리암스(1996년), 629쪽 참조.
4. (2001), 10
5. 우리가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상징," *성도의 벗*, 1994년 11월호, 6쪽 참조.
6. "Carry On," *Hymns*, 255장.
7. "이스라엘 시온 군대," *찬송가*, 156장

오른쪽: 멕시코 소노라 헤르모실로 성전, 사진 촬영: 스탠 떠민

# 마침내 내 어머니가 알고 싶어했다

트래저 엘더 바퍼스

장례 차 행렬이 묘지로 향하는 작은 길에 들어서자 지난 추억들이 내 마음을 스쳐갔다.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속에서, 나는 복음과 경전에서 위안을 찾고자 했다. 전도서 3장 1절이 마음에 와 닿았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우리 자녀들 각자가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셨다. 내 부모님은 한 번을 제외하고는 내 인생의 모든 시기에 함께 하셨다. 그때의 경험은 그들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주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발견한 간증을 이해하지 못했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열일곱 살이었을 때 몇몇 좋은 친구들이 내게 교회를 소개시켜 주었다. 회복된 복음이 내가 수년간 품고 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었지만 부모님은 어떤 식으로든 회복된 복음과 관련되기를 거부했다. 내가 18세에 교회에 가입했을 때 유일하게 할머니만이 나의 침례식에 참석하셨다. 할머니는 후기 성도가 아니셨지만 나의 영적인 필요사항을 이해하시는 듯 했고 언젠가 나의 부모님도 나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임을 내게 확신시켜 주셨다.

나는 침례를 받은 얼마 후에 결혼했으며 곧 멀리 이사를 갔다. 몇 년 후에 나는 편지를 통해 나의 성전 인봉 소식을 부모님께 전하면서 내가 느끼는 기쁨과 새롭게 발견한 신앙에 대해 이야기 했다. 하지만 그분들로 하여금 복음에 흥미를 가지게 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금 어머니와 여동생만이 남겨졌다.

차가 멈추면서 나는 생각에서 깨어났고 바로 우리 왼쪽에서 식물로 뒤덮인 기념비를 발견했다. 비석에 새겨진 글이 우리의 관심을 끌었지만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의식을 위해 묘소로 향했다.

의식이 끝난 후에 우리는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런 후에 남편과 어머니, 그리고 나는 기념비 쪽으로 걸어갔다. 그 위에 새겨진 것은 경전 구절이었는데 그것이 나의 가족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남편과 어머니, 나는 기념비 쪽으로 걸어갔다. 그 위에 새겨진 것은 경전구절이었는데 그것이 나의 가족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내가 침례 받고 확인 의식을 받은 지 14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질문을 하셨다. 회복된 복음 덕분에 나는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와 여동생은 침례 받고 확인을 받았다. 약 1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를 위한 성전 사업이 완료되었다.

공동묘지에서의 그날 이후 30여년 이 흘렀다. 그 기간 동안 나의 방계 가족이 성전에서 함께 인봉되었다. 어머니는 상호부조회 회장이 되어 몇 년 동안 헌신적인 봉사를 하셨다. 여동생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고 청녀 회장, 월계반 지도자 및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 직원으로 수년간 봉사했다.

기쁨과 슬픔의 시간을 포함하여,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다. 나는 기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에 응답된다는 것과 우리가 경전을 연구하고 상고하며 서로 나눌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제공한다는 지식에 감사 드린다. ■

## 그녀가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나?

**토마스 이 홀레처**

1961년 어느 날 로저 슬라고우스키 장로와 나는 독일 서부지역의 빌헬름스하펜에서 가가호호를 하고 있었다. 그때 한 노년의 미망인이 우리를 그녀의 소박한 아파트 안으로 친절하게 맞이했다. 나는 너무 놀라서 그녀가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녀는 수십 년 전 그녀가 젊은 엄마였을 당시 두 명의 후기 성도 장로들이 그녀 집의 문을 두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당시 그녀는 매우 바빴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돌려 보냈다. 후에 그녀는 그것에 대해 몹시 후회했고 만약 후기 성도 선교사들이 다시 문을 두드린다면 그들을 집안으로 초대하겠다고 맹세했다.

에머 헹케는 명민한 정신이 또렷했으며 그녀는 우리의 메시지를 경청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자주 먼 곳에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친절했으며 항상 얼마 안 되는 음식일지라도 우리와 나누고자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우리 메시지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하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그녀를 콜백리스트(역자 주: 가끔 방문해 볼 필요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에 올리고 우리가 근처에 들를 일이 있을 때마다 가끔씩 방문하기로

*에머 헹케는 우리의 메시지를 경청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자주 먼 곳에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결정했다.

몇 주 후에 우리는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방문하는 동안 놀랍게도 에머는 그녀의 침례 결심을 발표했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의 힘들었던 삶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끝 무렵에 그녀의 갓 태어난 딸이 죽었다. 1924년에는 아홉 살 난 딸이 디프테리아에 걸려 죽었다. 1941~1942년 겨울 동안,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러시아의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던 그녀의 스물 한 살된 아들의 마지막 편지를 받았다. 얼마 후에 그녀는 아들의 전사 소식을 접했다.

에머의 남편인 휴고는 나치 정부의 정책들을 경멸했다. 그녀는 자주 그에게 좀 더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1944년초, 정부의 라디오 신호 탐지기가 행케 집에서 영국의 방송국 신호를 추적한 후, 게슈타포(나치의 비밀 경찰)가 문을 부수고 그를 체포해갔다. 그는 함부르크 근처에 있는 강제 수용소에 보내졌고 에머와 어린 아들만이 남겨져 스스로를 돌보아야 했다.

에머는 남편을 투옥시킨 지역 나치 관리자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남편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1945년 3월에 휴고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관리자는 그 일로 인해 무기징역에 처해졌지만 우리가 에머의 문을 두드리기 얼마 전에 석방되었다. 그녀는 그 관리자가 비싼 새 차를 타고 도시의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자주 본다고 이야기했다. 침례 받겠다고 한 날, 에머는 드디어 남편의 목숨을 앗아가고 자비를 구하는 그녀의 간청을 거절한 그를 용서할 힘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심판을 주님의 손에 맡기기로 확고히 결심했다.

에머는 교회의 충실한 회원이 되었고 회복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함으로써 큰 기쁨과 위안을 찾았다. 1966년 11월, 상호부조회 모임에 가기 위해 빌헬름스하펜의 광장을 서둘러 지나가던 중에 그녀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행케 자매는 인생의 시련으로 인해 적의를 품지 않기로 결심했으며 분노나 복수심을 갖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했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 사랑스러운 자매는 그녀가 사랑했고 잃었던 사람들과의 기적적인 해후를 만끽 했을 것이다. ■

# 내가 가버나움에서 그리스도를 찾은 방법

**제이슨 존스**

수년간의 계획과 준비 끝에 나는 드디어 가족과 친한 친구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가게 되었다. 갈릴리 바다에 가까워지자 우리는 가버나움이 몹시 보고 싶었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후에 가버나움을 그분의 "본 동네"(마태복음9:1)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한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와 후에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과 갈릴리 바다의 해변이었다.(마태복음 4:18~22; 9:9 참조)

가버나움은 "나훔의 동네"를 뜻하거나 위안 또는 위로의 동네를 뜻한다. 그리스도는 이 도시 사람들에 대해 연민을 가지셨으며 귀신을 내 쫓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마태복음 8:16; 마가복음 5:35~42 참조) 그들을 위로하셨다. 후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에 대해 가버나움 사람들을 질책하기도 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아마도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이곳에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것이다.

가버나움에서 우리는 유적지들을 탐방했고 이 작은 마을이 목격했을 것에 대한 경외감을 가진 채, 고대 도시의 거리를 걸어 다녔다.(마태복음 11:23

참조) 후에 나는 나무 아래에 앉아 깊이 생각하며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았다. 경전상의 사건들을 느끼고자 하는 나의 큰 기대는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여행을 위한 준비,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진지함, 결국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낸 결단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허감을 느꼈다.

왜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셨던 이 장소가 우리의 삶을 축복하지 않는 걸까? 그러한 생각과 씨름하고 있을 때, 나는 경전이 읽고 싶어졌다. 각 사람들에게 확인해 보았지만 아쉽게도 아무도 성경을 가져오지 않았다. 다행히 일행 중 한 명이 PDA(개인 휴대용 정보 단말기)에 전자 경전을 가지고 있었다. 잠시 후, 우리는 함께 모여 누군가가 가버나움의 구주에 관한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5장의 구절들을 읽는 것에 귀 기울였다.

우리의 초점이 경전으로 옮겨지자마자, 내가 느끼고 있었던 공허감은 구주의 사랑과 경전이 증거하는 사건들의 실제성에 대한 위안으로 대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고자 가버나움에 왔지만 경전을 탐구하기 전까지는 그분을 찾지 못했다.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바로 성신이다.

경전 공부가 역사, 주해, 언어학적 이해 그리고 답사 등으로 보충될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이 경전에 몰입할 때 성신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부지런히 경전을 상고"(앨마서 17:2)하였던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이 원리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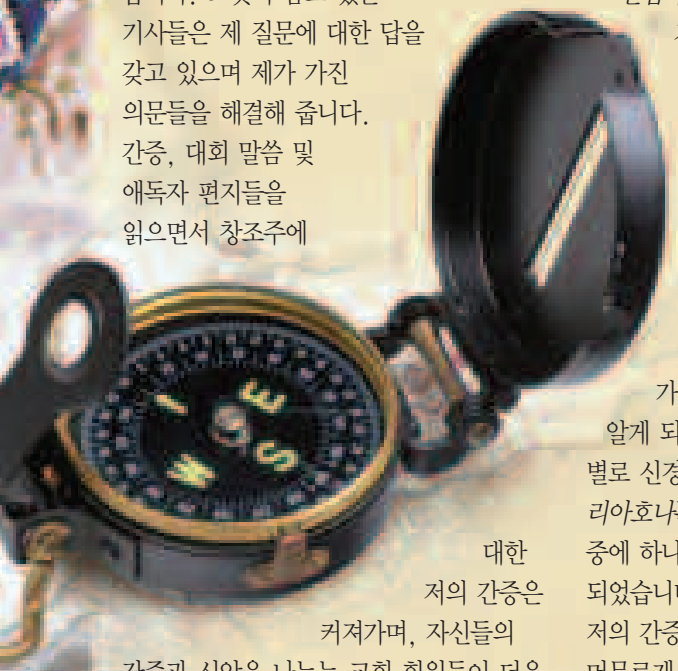
경전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매일의 경전 공부가 우리의 그리스도를 찾는 과정의 핵심이 되기를 바란다. ■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일행 중 한 명이 가버나움의 구주에 관한 경전 구절들을 읽는 것에 귀 기울였다.*

### 치유의 약

*리아호나*는 진실로 제 삶의 나침반입니다. 그것은 제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며 제가 낙담하고 있을 때 희망을 줍니다. 그것이 담고 있는 기사들은 제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으며 제가 가진 의문들을 해결해 줍니다. 간증, 대회 말씀 및 애독자 편지들을 읽으면서 창조주에 대한 저의 간증은 커져가며, 자신들의 간증과 신앙을 나누는 교회 회원들이 더욱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카르맨 모스코소, 스위스*



### 한 가지 주제만 다루는 발행본들

저는 *리아호나* 특별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예는 제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개종자를 위한 발행본과(2006년 10월호)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발행본(2007년 3월호) 입니다.

구도자와 새로운 개종자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나요? 저에게 있어서 저의 가족과 복음을 나누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들의 이해를 넓히고, 의심을 없애고, 그들이 제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도록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헥터 릴 레예스, 멕시코*

*편집자 주: 2008년 3월호가 형제님의 가족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교회 회원들이 구주에 관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기 바랍니다.*

### 금보다 더 값진

저는 몇 년 전 교회에 가입했을 때 처음으로 *리아호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리아호나*는 제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것들 중에 하나이자 제 성공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회복된 복음에 대한 저의 간증을 강화시켜 주었고 교회에 머무르게 도와 주었습니다. 이러한 힘 때문에 저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침례 받고 확인 의식을 받게 된 직장 동료에게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리아호나*를 공부하고 나누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것은 남은 생애 동안 저를 도울 것입니다. 저는 매달 주님의 선지자와 사도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게 *리아호나*는 꿀보다 더 달콤하고 금보다 더 귀중합니다.

*알드리르 과나코마 아베, 볼리비아*

### 어린 선교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정의반 반지에 대해 물었을 때 교회에 대해 이야기한 한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2007년 3월호의 "교장실에서의 정의반 반지"라는 기사는 저의 다섯 살 난 아들과 우리 지부의 다른 초등회 어린이들에게 항상 정의반 반지를 끼고 다니라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의 아들과 다른 어린이들은 그들의 학교 선생님이 반지에 대해 물어와서 교회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선교 사업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시 도브로볼스키, 우크라이나*

### 영혼의 보물

제가 갓 침례 받았을 때, 한 자매님이 저에게 *리아호나*를 구독하라고 권유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많이 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잡지의 엄청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리아호나*의 메시지는 제 영을 강화시켜 주었고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읽는 것은 제일회장단 메시지와 방문교육 메시지입니다. 저는 또한 친구들을 아들 리카르도와 나눕니다. 저는 오늘날 제가 이 잡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리아호나*를 통해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 정서적으로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리아호나*를 탐구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보물이며 경전처럼 어둠 속의 안내자 입니다. 저는 이 후기에, 세상에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리아호나*를 애독할 수 있었던 사실에 감사 드립니다.

*실비아 피구에로아-오스토라자, 푸에트 리코*

사진촬영: © GETTY IMAGES; 테두리 사진 촬영: 마태 라이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어린이들을 위한 별책 부록 · 2008년 4월호

# 친구들

# 세 개의 다리

*몬슨 회장님은 우리가 건너야 할 다리에 대해 가르치신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여러 해 전에 데이비드 에스 라벤더가 쓴 *The Way to the Western Sea (서쪽 바다로 가는 길)*이란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태평양에 이르는 육로를 찾고자 북미 대륙을 횡단하는 탐험대를 이끌었던 메리웨더 루이스와 윌리엄 클라크의 흥미진진한 여행담을 싣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악몽과도 같은 고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골짜기들을 지나 배를 타고 갈 만한 강줄기를 만날 때까지 생필품을 실은 배를 든 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들의 탐험 기록을 읽으며 "골짜기나 거센 물결을 지나는 현대식 다리라도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자랑인 아름다운 금문교나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의 견고한 하버 브리지, 또는 다른 여러 나라의 다리들과 같은 우리 시대의 웅장한 다리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여행자, 곧 필멸의 세계를 지나는 탐험가들입니다. 우리는 이 탐험에 대한 사전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자신만의 인생길을 여행하는 동안 가파른 절벽과 소용돌이치는 물길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 다리를 짓는 위대한 건축가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들을 만드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순종의 다리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개인적인 순종의 변함없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 댄 버

우리가 건너도록 주님께서 마련하신 둘째 다리는 봉사의 다리입니다. 우리는 봉사의 모범으로서 구주를 바라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상에 오셨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봉사하셨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축복하시고, 앉은뱅이를 걷게 하시며, 눈이 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가 먼 자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기도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영을 네게 부어 주리니, 네 복이 크리라"(교리와 성약 19:38)

다리를 짓는 분인 예수께서는 우리가 사망이라 부르는 광활한 협곡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22)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인류는 그분께서 놓으신 다리를 건너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2003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 생각해 볼 점

*1. 여러분이 더욱 순종하고 싶은 계명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2.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을 돕고 봉사하는 방법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3.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명하신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4.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음을 아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가깝게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선지자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_____
2. _____
3. _____

*주: 리아호나에서 이 장을 떼어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www.lds.org에서 인쇄할 수 있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Languages"를 클릭한다.*

# 선 지 자 의 말 씀 따 라 살 리 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아모스 3:7)**

**린다 크리스턴슨**

*혼란스런 세상 사는 우리들*
*믿음 약해질 때 소식 들어봐*
*우리들의 갈길 인도해 주니*
*예언자의 말씀 따라 살리라*

"예언자 따라"(*어린이 노래책*, 58~59장)에 나오는 다음의 말들은 여러분에게 선지자의 말씀을 유의하여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유의하다"*와 *"따르다"*라는 단어는 듣고 순종함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은 가족들이 선지자가 행하라고 권고하신 것을 순종하고 행하기로 선택했던 적이 있습니까? 순종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몇몇 초등회 어린이들이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나누는 것을 듣는다. 어스틴이 말했다. "그분이 말한 것을 행할 때 저는 행복해 집니다." 린드세이가 말했다. "선지자가 제게 정숙한 옷을 입고 교회에 참석하고 경전을 읽으며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침례를 받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며 엄마와 아빠의 모범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교리와 성약 21편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말을 마치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같이 받아들일지니라." 이 경전은 여러분에게,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을 말씀하실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선지자는 항상,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게 해 주는 방법대로 사는 길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활동**

친4 페이지를 떼내어 두꺼운 종이에 풀로 붙인다. 선지자가 연차대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행하도록 부탁하는 세 가지를 선택한다. 그것을 종이에 적는다. 그 종이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여 선지자를 따르는 것에 대해 상기할 수 있게 한다.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침례 요한이 조셉 스미스에게 와서 아론 신권을 회복한 것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한 것에 대해 간략하게 나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권을 통해 교회 회원들을 어떻게 축복하실 수 있는지 설명한다. 감독이나 지부 회장으로부터 승인된 신권 지도자에게 신권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는지 초등회 어린이들에게 이야기 하도록 부탁한다. 종이, 연필, 크레용 또는 마커를 나누어 준다. 어린이들에게 신권이 그들의 삶을 축복했던 예를 그림으로 그리게 한다. 한 어린이에게 교리와 성약 107편 64~67절을 읽어 달라고 한다. 질문한다. "교회의 대신권을 감리하는 감리 대제사는 누구입니까?"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선지자가 모든 신권의 열쇠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교회 전체를 감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임을 가르친다.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찬송가 6장)을 부른다. 선지자와 신권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눈다.*

*2. 복음 그림 패킷 520(고든 비 힝클리)을 보여주고 힝클리 회장님(1910-2008)이 이야기하신,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꾼 그릇된 선택을 한 10대 소년을 용서해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눈다("더욱 쉽게 용서함" 리아호나 2007년 3월호 친2~친3 참조). 우리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치셨다고 설명한다. 연극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에게 용서에 관한 경전 이야기를 가르친다.("연극,"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년], 172-173 참조).*

*예: 창세기 42~45장-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함.*
*니파이전서 7장-니파이가 그의 형제들을 용서함.*

*구주의 대속에 관한 간증을 나눈다.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 받으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는지 이해시킨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 첫번째 시현

삽화: 샐 벨루토 외 우제니오 마토지

그가 말을 하려고 하자마자, 그는 어두운 세력에 둘러 싸였고 자신이 파멸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이 악마의 세력으로부터 구해 달라고 기도 했습니다.

후에 조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큰 공포의 순간에,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점차 내려와 이윽고 내게 임하였다 ….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조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들은 그에게 모든 교회가 그릇되니 어느 교회에도 가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셉이 사람들에게 그가 본 시현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그를 놀렸습니다.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은 그가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핍박했습니다.

시현 같은 것은 더 이상 없다!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악마에게 속은거야.

조셉은 결코 그의 간증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함으로써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었다. …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조셉스미스–역사 1:5~25에서 발췌; 또한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xiv 3~5, 28~31, 32~34, 38, 438, 545~547쪽 참조.*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교리와 성약 136:28)*

# 엄마의 노래

**쉐일라 킨드레드**
실화에 근거함

수잔은 갑자기 깨어났다. 이 소리는 뭐지? 그녀는 주의 깊게 들었다. 바람이 유칼립투스 나무 사이로 세차게 불어 무르익은 열매를 그녀의 침실 위 지붕에 떨어뜨렸다. 장대비가 내리는 것 같은 열매 떨어지는 소리가 그녀를 잠에서 깨웠다.

수잔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가족은 얼마 전에 이 집으로 이사했고 그녀는 새로운 모든 소리에 익숙하지 않았다. 수잔이 이제 혼자서 잔다는 사실은 더욱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전 집에서는 언니와 함께 방을 썼었다.

그녀는 여러 개의 열매가 다시 한 번 지붕에 떨어지자 이불을 턱까지 끌어 올렸다. 그녀는 무섭고 외로웠으며 자신이 아빠를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잔의 아빠는 군대의 장교였다. 아빠는 훈련을 받느라 집에 안 계셨다. 아빠가 위험에 처해 있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갑자기 무서워졌다. 만약 훗날 아빠가 전쟁터에 나가 전사를 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녀는 아빠 없이 크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빠가 필요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잔은 점점 커져가는 두려움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언니는 가까이 있지 않았지만 수잔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이불 밖으로 빠져 나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녀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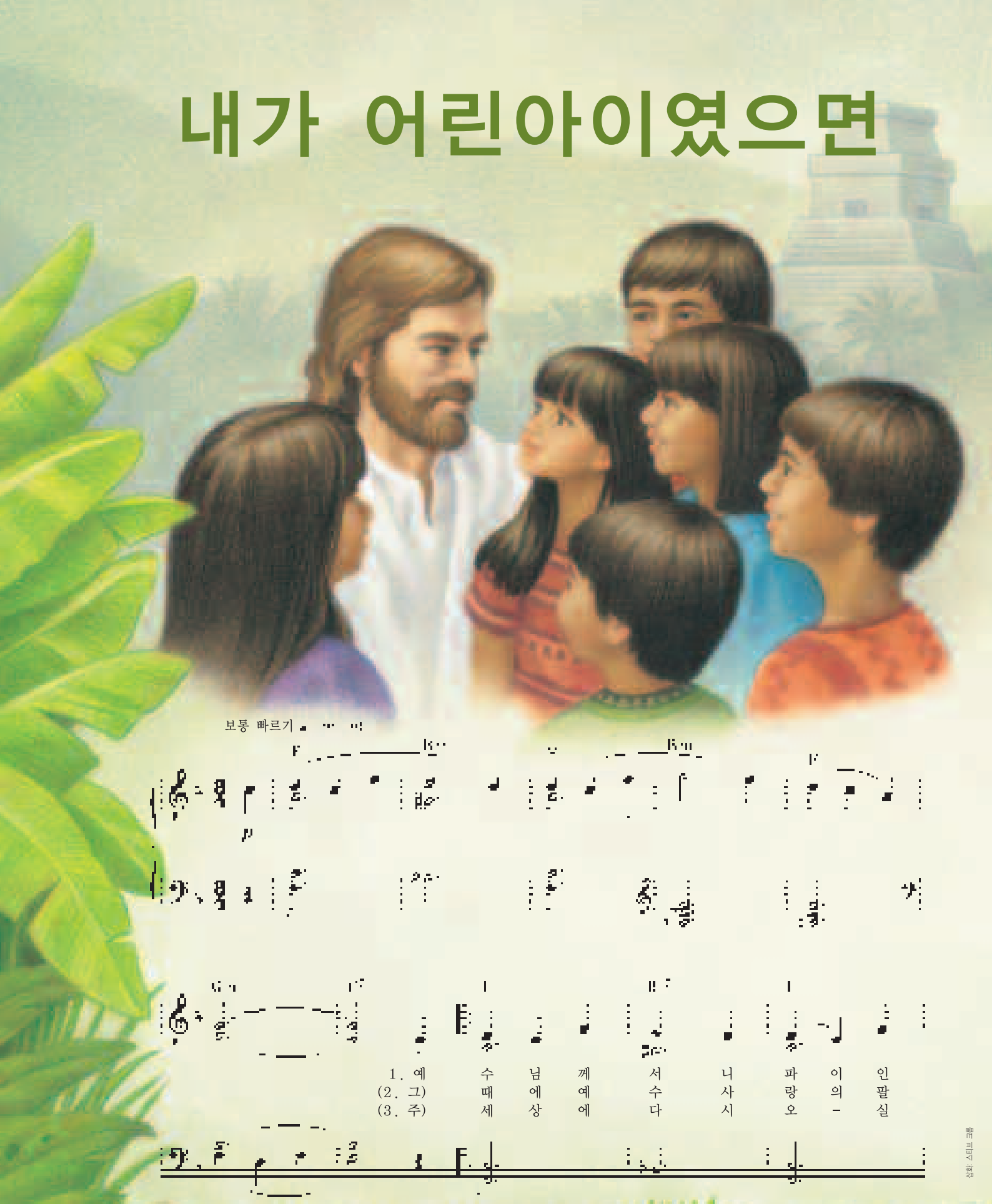
그러고 나서 수잔은 어떤 소리를 들었다. 지붕에서 났던 소음보다는 부드러운 소리였다. 그것은 엄마가 노래를 부르는 소리였다. 엄마는 집안을 둘러보며 집안 일을 마무리하고 잠자리를 준비하면서 노래를 부르셨다.

수잔의 엄마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셨고 자주 노래를 부르셨지만 이번 곡은 수잔이 지금까지 들어본 엄마의 노래 중 가장 아름다운 노래였다. 수잔은 그 노래를 몰랐지만 노랫말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다. 그 노래는 그녀의 마음을 평화로 가득 채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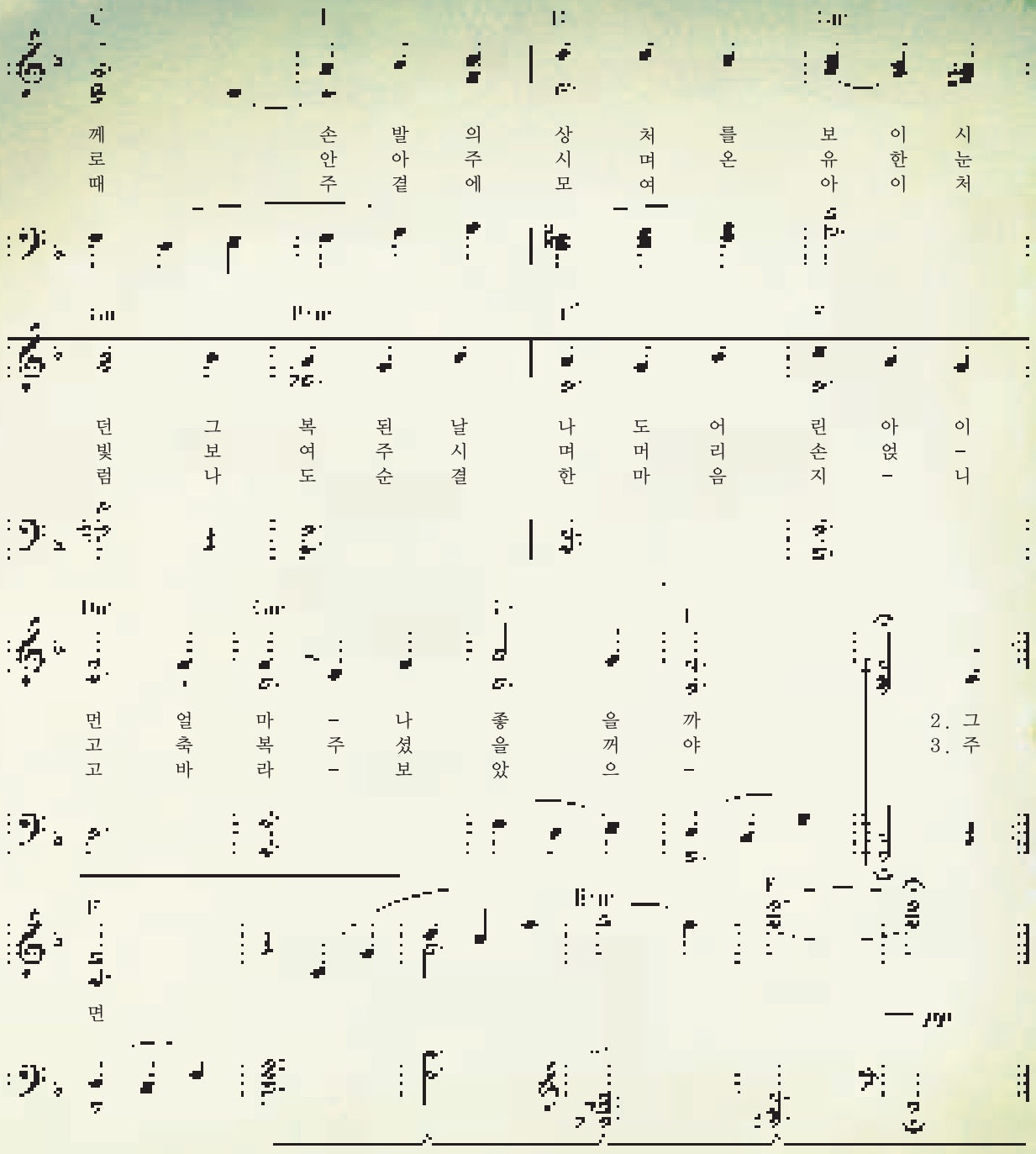
수잔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 후 침대로 다시 올라갔고 엄마의 노래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감사와 안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잘 됐다고 느꼈다. 그녀에게 사랑이 많은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염려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항상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 수잔은 두려움이 압도하려 위협 할 때마다 엄마의 노래가 두려움보다 강했던 그 밤을 기억함으로써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

사진 촬영: 마테 라이어 사진, 모델이 포즈를 취함

# 내가 어린아이였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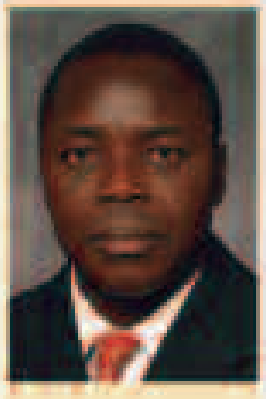

보통 빠르기
1. 예 수 님 께 서 니 파 이 인
(2. 그) 때 에 예 수 사 랑 의 팔
(3. 주) 세 상 에 다 시 오 - 실

삽화: 스티브 크롬


깨 로 때
손 안 주
발 아 곁
의 주 에
상 시 모
처 며 여
를 온
보 유 아
이 한 이
시 눈 처
던 빛 럼
그 보 나
복 여 도
된 주 순
날 시 결
나 며 한
도 머 마
어 리 음
린 손 지
아 얹 –
이 – 니
먼 고 고
얼 축 바
마 복 라
– 주 –
나 셨 보
좋 을 았
을 꺼 으
까 야 –
2. 그
3. 주
면

# 자족하는 것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빌립보서 4:11).*



***알랙산더 에이 오둠 장로와의 인터뷰에서, 아프리카 서 지역의 지역 칠십인; 인터뷰 진행자 에프 온예부에즈 메리브가***

저는 나이지리아 남부의 한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고구마, 옥수수, 카사바(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전분 뿌리), 플라테인(바나나 비슷한 과일)과 기타 농작물들을 길러서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모범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밭에서 일했으며 우리에게는 먹을 음식이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면 성공한다고 믿으셨습니다.

부모님은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또한 권위 있는 분들에게 순종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입니다.

제가 어린이였을 때, 한 이웃이 축제 동안 우리에게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선물을 받을 때에는, 그 음식을 언제 먹을지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그 음식이 먹고 싶어서 울면서 음식을 좀 달라고 어머니에게 졸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전통적인 역할을 무시하고 싶진 않으셨지만 제가 실망하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음식을 잘라서 제게 좀 주셨습니다.

후에 아버지가 집에 오셨을 때 제가 한 일을 아시고는 언짢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아버지 방으로 오라고 하시고는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마음의 평화와 훌륭한 삶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몇 년 후에 저는 많은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 주인은 제게 저의 아내와 제가 다음날까지 이사를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녀가 우리에게 나가라는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아파트를 급히 구하기 위해 도움을 청하러 친구의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소개하며 토론이 끝날 때 저의 질문들에 답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 조셉

삽화제이 브라이언트 더블류 와드; 지도 © MOUNTAIN HIGH MAPS

스미스와 복음의 회복에 대해 가르쳤을 때, 저는 제가 진리를 찾지 못 한 채 여러 교회를 옮겨 다닌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과 약속을 했고 그들은 아내와 저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곧 침례를 받고 확인 의식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교회에서 여러 부름에 봉사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매우 단단한 기초를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부모님의 권고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초등회 교사와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순종하고, 몰몬경을 읽고, 침례 성약을 지킨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 꼿꼿이 섬

제니퍼 메디
교회 잡지

전 세계의 어린이들은 기도하고 초등회 노래를 부르며 복음에 대해 배웁니다.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이번 달은 이탈리아 칼치의 주디와 크리스토퍼를 만나 봅시다.

이탈리아에는 기울어진 탑이 하나 있다. 사람들은 12세기 건축가들이 애초에 종탑이 기울어지도록 계획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탑이 원래 똑바로 서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피사의 사탑 아래의 땅은 예측할 수 없이 움직이고, 기초 아래 지하수의 수면은 계절에 따라 올라오거나 가라 앉는다. 200년 동안 건축가들은 탑의 기울어짐을 멈추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하나의 사실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탑의 기초가 불안정한 땅의 움직임으로 인해 이동했던 것이다.

피사의 외곽에 위치한 마을인 칼치, 그 마을에 사는 피사 지부의 주디와 크리스토퍼 세리니는 흔들리는 곳에 서 있지 않다. 그들은 복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에 근원을 둔 강한 기초를 지었다.

**좋아하는 것들**

**주디, 11살**

음식: 딸기
학교 과목: 역사
가족 활동: 함께 게임하기
운동: 배구
가보고 싶은 곳: 성전

**크리스토퍼, 8살**

음식: 젤라토(이탈리아 아이스크림)
학교 과목: 문학
가족 활동: 아빠와 비디오 게임하기
운동: 축구
가보고 싶은 곳: 바다

사진 촬영: 제니퍼 메디와 킴벌리 레이드; 뒷 배경 사진 촬영: 제드 클라크

**그들이 성장했을 때**

주디는 배우나 가수가 되고 싶어한다.

크리스토퍼는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하고 축구를 하고 싶어한다.

**봉사의 힘**

세리니 가족을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해 주는 하나는 그들의 침례 성약이다. 크리스토퍼는 최근에 침례와 확인 의식을 받았는데, 침례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준 것은 "아빠와 한 친구가 함께 노래를 불렀을 때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지금 크리스토퍼와 주디는 항상 그들의 침례 성약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크리스토퍼는 "저는 다친 친구가 있으면 도우려고 노력해요."라고 말한다. 주디 또한 봉사하는 것을 좋아한다. "저는 집안일을 도와요. 저는 크리스토퍼의 공부를 도와주고 친구들에게 봉사합니다."

아빠가 덧붙이신다. "밥상을 차리거나 식사 후에 설거지 부탁을 받았을 때 그들은 기꺼이 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돕습니다."

**굳건한 모범**

칼치에는 교회 회원이 많이 없지만 주디는 그것이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의 복음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는다. "몇몇 친구가 저에게 교회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그녀는 말한다. "저는 한 친구를 교회에 데려 왔는데, 그 친구는 교회에 와보고 좋아했답니다. 때때로 친구들이 저를 놀리기도 하고 제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헛소문도 있어요. 하지만 제 친구들 대부분은 이해해주는 편이며 교회에 관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아빠의 생각**

"주디는 매우 사려 깊고 도움이 되는 아이이며,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입니다. 크리스토퍼는 사랑이 많고 친절합니다. 그들은 함께, 매우 행복합니다. 물론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족 간의 조그마한 말다툼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합니다."

**영적인 기초**

어린이들의 영적인 기초는 초등회를 참석함으로써 강화된다. 주디는 단상에서 경전 읽는 것을 좋아하며 그들은 둘 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크리스토퍼가 좋아하는 노래는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1] 그들이 교회에서 갖는 좋은 느낌은 집에서도 계속 된다. "가족 기도를 하는 동안 저는 영을 느껴요."라고 크리스토퍼가 말하고 주디가 동의한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피사의 사탑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앞으로 300년, 혹은 그 이상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운 좋게도 주디와 크리스토퍼는 그들을 영원토록 지탱해 줄 튼튼한 기초 위에 그들의 삶을 세웠다. ●

**주**

1. *어린이 노래책*, 2~3쪽.

지도 © MOUNTAIN HIGH MAPS

# 인생을 바꾸기에는 충분했지만 봉사의 열망을 충족시킬 수는 없었던 한 번의 선교 사업

**몰리 파머, 교회 잡지**

1950년 로즈와 론 하비가 결혼했을 때 훗날 결혼 생활의 16년을 함께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러한 꿈을 결코 꾸어본 적이 없었어요."라고 하비 자매는 말했다.

이 캐나다인 부부는 1992년부터 미국, 캐나다, 태평양 제도 등지에서 교회를 위해 아홉 번이나 선교 사업을 했다.

그들의 경험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영적인 최고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라고 하비 자매는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마음의 변화는 16년을 봉사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아홉 번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선교 사업을 마쳤을 때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하비 형제와 자매는 성공했으며, 복음 가운데서 성장했고, 시련을 견디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극복했다. 현재, 그들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깝우며, 그들은 그들이 받은 힘과 주님께서 그들과 가족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 주저없이 말한다.

### 계속해서 주를 섬기라

1992년 하비 형제와 자매가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선교부에서 행한 첫 번째 선교 사업은 특히 하비 자매에게는 놀라운 경험이 되었다. 하비 자매는 자녀들이 선교 사업 준비를 하면서부터 자신도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해 왔었다. 이들 부부는 회원을 재활동화시키고 지부가 조직되는 것을 보면서 큰 기쁨을 찾았다.

나중에 이 부부는 사우스다코다 래피드 시 선교부에서 전도하며 선교 사업을 했고, 뒤 이어 솔트레이크시티 소재 가족 역사 도서관과 유타 교도소에서 가족 역사 선교 사업을 했다. 유타 교도소에서의 봉사는 독특한 도전이었는데, 하비 형제와 자매는 수감중인 이들에 대해 큰 동정심을 갖게 되었다.

하비 형제와 자매는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에서 또다시 전도하며 선교 사업을 했고, 미국령

사모아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에서 두 번에 걸쳐 인도주의 봉사 선교 사업을 했다. 그런 다음 곧 바로 캐나다 캘거리 선교부에서 또 다른 가족 역사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캘거리에 일년 반이 지난 후 이번에는 캘거리

론과 로즈 하비 제공

*미국령 사모아에서 선교 사업 중인 로즈와 론 하비 부부 선교사는 여러 번의 선교 사업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로라 로즈 하비 제공

*해가 뜨나 눈이 오나, 각각의 선교 사업의 경험은 독특한 것이었다.*

선교부 내 브리티시 컬럼비아 골든과 앨버타 카드스톤에서 또 다른 가족 역사 선교 사업을 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어려움에 봉착**

하비 형제와 자매의 수년간에 걸친 봉사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다. 이들도 재정적인 문제, 두려움, 적절한 기회 찾기, 가족에 대한 염려 등과 같은 모든 예비 선교사들이 직면하게 되는 똑같은 장애요소들을 극복해야만 했다.

*재정:* 하비 형제와 자매가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검소한 생활 덕분이었다. 이들은 불필요한 지출과 청구서를 없애 버림으로써 재정 지출을 간소화했고, 퇴직 연금과 정부의 연금이 구좌에 자동 입금되도록 했다. 그들의 선교 사업 기금은 넘치지는 않았지만 항상 충분했다. "우리는 결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단지 큰 신앙이 있었을 뿐입니다."라고 하비 자매는 말했다.

*두려움:* 하비 형제는 일지에서 (이들 부부는 미니애폴리스에서의 첫 번째 선교 사업 이후부터 줄곧 일지를 기록해 왔다.) 말씀을 전파하기에 부족함을 느낀다고 기록했고, 하비 자매도 때때로 그러한 생각에 공감했다. 그들의 걱정은 "나는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였다고 하비 자매는 말했다. "우리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이제 겨우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 주님을 대표한다는 것은 큰 책임입니다." 그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 주님께서 그분을 섬기는 자들을 보살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적절한 기회를 찾음:* 한 부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봉사의 기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부부는 감독이나 지부 회장과 접견시 그들의 건강 및 재정 상태 이외에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에 대해 고려해 보도록 조언받는다. 하비 형제와 자매가 봉사했던 분야는 그들이 살았던 곳처럼 다양하다. 그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면 그것이 인도주의 봉사 선교사이든, 가족 역사 선교사이든, 아니면 전도를 하는 선교사이든 상관없이 기꺼이 봉사했다.

*가족:* 연로한 선교사들이 말하는 가장 큰 걱정 중의 하나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이다. 하비 형제와 자매에게는 7명의 자녀와, 39명의 손자 손녀와 25명의 증손자 증손녀가 있었다. 이들과 동시에 몇 년을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들이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보다 자손들과 더욱 가까워졌음을 느낀다. "우리들 사이에서 자라난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 자녀들 때문에 선교 사업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더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비 자매는 말했다.

하비 형제와 자매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이며 영광입니다. 그것이 참되다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하비 자매는 말했다.

**신앙의 유산을 확립함**

하비 형제와 자매가 기여한 봉사는 선교지역 경계를 훨씬 벗어난 것이었다. 그들의 선교 사업은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자손들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이다. 하비 자매는 "우리의 선교 사업이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할 때 참으로 경이롭습니다."라고 말했다.

하비 형제와 자매의 모범이 후손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후손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한다. "손자 손녀들이 선교임지로 나갈 때 그들은 노년의 연세에도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쏟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영감을 받습니다."라고 하비 형제와 자매의 딸인 테리 컬 자매는 말했다.

하비 형제와 자매는 처음 두 번의 선교 사업 이후 그들의 가족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 계속해서 봉사하려는 영감을 받았다.

"어떤 면에서는 조부모로서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비 자매는 말했다.

손녀인 니콜 컬 자매는 현재 아이다호

포카텔로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최근 조부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조부모님들이 주님께 바치는 헌신을 보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저의 열의가 더욱 커집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선교 사업에 대한 열의는 부분적으로는 그분들의 모범 때문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감**

하비 형제와 자매는 그들의 봉사로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과 더욱 친밀해졌지만, 부부로서도 더욱 가까워졌다. 하비 자매는 그들이 매일 하는 경전 공부가 "일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묘사했다.

하비 형제는 아내와 함께 계속 봉사하면서 더욱 가까워졌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내가 느끼는 것이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녀가 울면 저도 울고, 그녀가 웃으면 저도 웃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의 주님과의 관계 또한 그들이 주님께 위안과 인도를 의지하면서 깊어졌다. "선교 사업을 나가면 전적으로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게 됩니다."라고 하비 자매는 말했다.

하비 형제와 자매는 성신의 속삭임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려 할 때면 언제나 보호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항상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일찌감치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 열의와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비 자매는 말했다. ■

## 남미 서부 지역 회장단이 재조직됨

제일회장단은 2007년 12월 20일부로 남미 서부 지역 회장에 마커스 비 내쉬 장로가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의 후임으로 봉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곤잘레스 장로는 2007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 지지받았다.

내쉬 장로는 2006년 4월 1일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는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을 당시 북미 북서 지역의 지역 칠십인이었다.

두 명의 지역 칠십인이 이 지역 회장단 보좌로 봉사하게 된다. 현재 이 지역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는 알렉산더 에이 누네즈 장로가 제1보좌로 봉사할 것이다. 누네즈 장로는 2004년 4월 3일 칠십인 제사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받았다.

2006년 4월 1일부터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하고 있는 세자르 에이치 후커 장로는 제2보좌로 봉사하게 된다. ■

## 더 많은 회원들이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몰리 파머, 교회 잡지**

텔마 테일러 자매는 그녀가 살고 있는 미국 애리조나 주 메사의 지역 가족 역사 센터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고 기뻤다. 17년 동안 그녀는 조상들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돕고, 안내하며, 지원해 왔다. 그러나 그녀가 2005년에 애리조

© 2007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교회 봉사 선교사인 엘리자베스 페리 자매가 데이비드 파라 형제에게 그의 조상에 관한 정보를 찾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다. 새로운 FamilySearch 웹 사이트를 사용하면 집에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역시 집에서 봉사하고 있는 교회 봉사 선교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포함된다.*

나 쿨리지로 이사하면서 그녀가 열심히 도와주던 의뢰인들이 있는 가족 역사 센터와 64킬로미터나 떨어지게 되었다.

83세가 되어 눈도 거의 안 보이고 운전도 할 수 없었던 테일러 자매는 메사로 여행할 수 없게 된 것이 가족 역사를 위한 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 하여 두려웠다. 그때 어느 사려 깊은 지도자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테일러 자매가 교회 봉사 선교 사업의 형식으로 집에서 봉사하는 것을 제안했다. 2006년 이래 테일러 자매는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가족 역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교회의 FamilySearch 지원 선교사로 봉사해 오고 있다.

"모두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족 역사 분야에서 그리고 제가 봉사할 수 있는 능력에서 많이 발전했습니다."라고 테일러 자매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새로운 자원이 새로운 요구를 가져옴**

교회가 새로운 FamilySearch.org 웹사이트를 8개 국어로 시험 운영하기 시작하자 테일러 자매와 같이 의뢰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찾기 위해 가족 역사 도구를 사용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회 봉사 선교사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FamilySearch는 교회의 온라인 계보 자원으로서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새로운 기능을 갖추어 재구축되고 있다. 이 새로운 사이트는 무엇보다도 의식 작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FamilySearch를 전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특히 이 해당 언어들과 차후에 사용하게 될 언어들을 사용하는 전세계의 교회 봉사 선교사들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의뢰인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주님의 사업에 박차를 가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FamilySearch 지원부의 지역 관리자인 아트 존슨 형제는 말했다.

**봉사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함**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선교사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웹 기반 전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한 달에 일만 건의 문의에 답변할 수 있다. 의뢰인들의 질문은 가족 역사 조사, 색인, 성전에 이름 제출 등을 포함하여 그 주제가 다양하다.

현재 여섯 명의 선교사를 돕고 있는 테일러 자매는 비록 시력이 좋지 않지만, 의뢰인들의 이메일을 읽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컴퓨터의 글꼴 크기를 크게 할 수 있다.

봉사 선교사들은 집에서 수료할 수 있는 온라인 집중 교육을 받는다. 선교사들은 영어로 말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질문에 답변을 주고 개인적인 훈련과 도움을 제공해 줄 지역 스태프와 함께 자국어로 봉사하게 될 것이다. 일단 교육 과정을 마치면 의뢰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참조할 수 있는 약 4,000개의 기사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다.

66세가 되어서야 컴퓨터 작동법을 배웠지만, 테일러 자매는 그것은 유익하고 쓸모 있는 기술이라고 말한다. "나이는

**라틴 아메리카의 가족 역사 온라인화 작업에 만 명의 자원 봉사자가 필요함**

FamilySearch는 마이크로필름이나 기록 저장소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접근하기 어려운 수백만의 라틴 아메리카 기록을 디지털로 보관하고 온라인 색인을 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영어와 스페인어를 읽을 수 있는 만 명의 자원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자원 봉사자들은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기록을 색인하는 데 주당 최소 30분을 일할 수 있다. 이들은 디지털 이미지에 강조 표시되어 있는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완성된 제품은 무료이며, FamilySearch.org의 원 이미지에 링크된 완전한 검색 기능을 갖춘 온라인 색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만 명의 2개 국어 색인 작업자들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즉 십 만 명이 넘게 될 자원 봉사자의 대열에 서게 될 것이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FamilySearchIndexing.org에서 등록해야 하고 한 번에 한 배치씩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기에 너무 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테일러 자매는 말했다.

**봉사 자격 요건 및 방법**

FamilySearch 지원과 같은 교회 봉사 선교 사업은 전임 선교사 봉사를 대체하지는 않지만, 전임 선교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저에게 이상적인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배우고 봉사할 수 있으니까요."라고 테일러 자매는 말했다. 그녀는 교회 봉사 선교 사업으로 인하여 선택의 범위가 제한된 나이에 자신을 쓸모 있는 사람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교회 봉사 선교사들은 전임 선교사들처럼 성별받고 이름표를 착용한다. 이들은 웹 사이트 작업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을 받고, 의뢰인들의 질문에 어떻게 적절히 답할 수 있는 지를 배운다.

FamilySearch 지원 선교사들은 6개월에서 30개월 동안 주당 15시간 내지 30시간을 봉사하며 집에서 전임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다.

현재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는 약 700명이 되며 새로운 FamilySearch를 더 많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일 년 후에는 두 배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교회 봉사 선교사로 봉사하길 희망하는 사람들은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문의한다. FamilySearch 지원 기회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support@familysearch.org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contact.familysearch.org/ko.htm를 방문하여 지역 전화 번호를 알아낸다.

**선교사들과 의뢰인들에게 오는 축복**

그들의 지도자들이 지적한 대로, 연로하거나 젊은 많은 회원들의 삶은 봉사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축복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수고에 대해 보람을 느낄 것이다.

"[교회 봉사 선교사들이] 그들의 부름을 수행하면서 보여주는 헌납의 정신덕분에 이 사업의 성장과 확장에 많은 기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라고 존슨 형제는 말했다.

이 사업은 성취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정신이 여러분 마음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상관 없이 FamilySearch 지원 선교사로서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테일러 자매는 말했다.

봉사 선교사들이 제공하는 지원이 새로운 FamilySearch의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존슨 형제는 말했다. 의뢰인에게 준 답변이 누군가가 조상을 찾아 그분의 성전 사업을 완수할 수 있게 도울 수도 있으며,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성스러운 사업이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 휘장 저편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복음의 축복과 의식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라고 존슨 형제는 말했다. ■

## 통가 성전, 헌납식 이전에 사만 명이 방문함

보수 작업을 마친 통가 누쿠알로파 성전이 2007년 11월 4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에 의해 헌납되었다. 이 헌납식은 한 달 동안 사만 명의 방문객을 동반한 일반인 공개 이후에 치러졌다.

"성전 방문은 내 일생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라고 방문객 중의 한 명인 통가 원주민 모이모이 홀라는 말했다.

방문객 수는 다른 섬에서 온 사람들도 포함되었지만 이 섬나라 총인구의 40 퍼센트에 달한다. 특별 손님 중에는 필로레부 왕비, 통가 국무총리 펠레티 세벨레의 부인인 에이니세 세벨레 여사가 포함되어 있다.

© 2007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통가 필로레부 왕비(오른쪽)가 일반 공개 중인 보수된 누쿠알로파 통가 성전을 방문하고 있다.*

"성전을 방문한 것은 평화, 평온, 희망, 행복, 기쁨으로 모든 것이 거룩한 왕국에 혼자 여행을 온 것과 같았습니다."

라고 세벨레 여사는 설명했다.

또다른 방문객인 피나우 니사는 "성전에 있는 동안 천국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통가 누쿠알로파 성전은 1983년에 처음 헌납되었다. 2006년에 465 제곱 미터에 달하는 확장 공사를 위해 문을 닫았었다.

인구 11만 명인 이 나라의 교회 회원수는 160개 이상의 집회소에 5만 명 정도이며 회원 비율이 약 46퍼센트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

## 새로운 렉스버그 아이다호 성전이 문을 엶

아이다호 렉스버그 성전은 한 달 동안의 일반인 공개가 끝나고 2008년 2월 3일 헌납되었다. 40분 투어 티켓이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배부되었고, 첫 날에만 수만 장의 티켓 주문이 쇄도했다.

조직 위원회는 일반인 공개가 진행되는 2007년 12월 말부터 2008년 1월까지 약 15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했었다.

아이다호 렉스버그 성전은 1945년 9월 23일에 헌납된 아이다호 폴스 성전과 1984년 5월 25일 처음 헌납된 아이다호 보이시 성전에 이은 아이다호 주의 세 번째 성전이다. 아이다호 주의 네 번째 성전인 아이다호 트윈 폴스 성전은

© 2007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렉스버그 아이다호 성전*

2004년 10월에 발표되었고 기공식은 2006년 4월 15일에 있었다. ■

## 새로운 필리핀 성전 단지 기공식이 세부에서 열림

2007년 11월 14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세부시 라후그의 세부 필리핀 성전 단지를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

옥스 장로는 기공식에서 그들이 "이 땅을 주님께 헌납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전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자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모였다고 말했다.

옥스 장로는 헌납 기도에서 필리핀 백성들이 평화, 화합, 번영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성전이 아무런 결함이 없이 건축되도록,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그 거룩함을 느끼도록 축복을 했다.

이 역사적인 행사에는 7개의 인근 스테이크와 지방부의 스테이크 및 지방부 회장단, 감독, 지부 회장, 스테이크 보조조직 회장단 및 새로운 세부 필리핀 성전 지역의 6명의 선교부 회장들, 지역사회 지도자들 등 약 400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 필리핀 지역 회장인 키이스 알 에드워즈 장로, 그의 보좌들인 칠십인 정원회의 고원용 장로와 마이클 제이 테 장로도 참석했다.

필리핀 세부 시 스테이크의 안토니 존 발레도스 회장은 그의 기도에서 23년 전 필리핀에 처음으로 성전이 건축된 후, 필리핀 성도들이 세부에 지어질 두 번째 성전을 갖게 되어 필리핀 중부와 남부의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축복이라고 했다.

기공식이 있던 날 저녁, 옥스 장로는 3000명 이상의 회원들과 함께 노변의 모임을 갖고 "거룩한 습관"을 발전시킴으로써 성전에 갈 준비를 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거룩한 습관은 마지막 심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습관에는 개인 및 가족 기도, 경전 읽기, 매주 일요일에 성찬을 취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필리핀 세부 성전 단지에는 4.7 헥타르의 땅에 의식 참여자 숙소, 집회소, 성전 회장 및 선교부 회장 사택, 선교부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성전 자체의 부지는 2,391 제곱 미터이다.

필리핀 세부 성전은 교회에서 발표, 운영, 또는 공사 중인 132번째 성전이다. ■

## 엘살바도르에 새로운 성전 건축 발표

**크리스 모랄레스, 처치 뉴스**

2007년 11월 18일, 제일회장단은 중앙 아메리카의 국가인 엘살바도르에 성전을 건립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과테말라 과테말라 시티 성전까지 멀리 여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최근 증가한 고속도로 강도에 시달려야 하는 회원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우리는 마음 속으로 기도를 하며 갑니다. 우리는 성전에 가서 그러한 의식들을 수행해야 합니다."라고 마누엘 어네스토 로페즈 산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스테이크 회장은 말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산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스테이크는 정기적으로 성전을 방문하는 회원 수가 증가했다.

엘살바도르의 많은 회원들에게 보통 왕복 32시간이 소요되는 성전 방문이 이제는 6~7 시간으로 단축될 것이다.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성전 건립의 발표로 중앙 아메리카 지역에서 운영, 발표, 또는 건축 중인 성전은 이제 6개가 되었다. 이 성전은 북서쪽의 멕시코와 남동쪽의 콜롬비아 사이를 연결하는 7개의 국가를 포함한다.

현재 이 지역에서 운영 중인 성전은 1984년 12월 헌납된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성전과 2000년 6월 헌납된 코스타리카 산호세 성전이다. 파나마 파나마시티 성전 건축은 2005년 10월에 시작되었다.

이 나라의 두 번째 성전인 과테말라 퀘잘테낭고 성전과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성전 등 다른 두 개의 성전은 이미 발표되었으며 기공식을 기다리고 있다.

지도: 토마스 에스 차일드 제공

***중앙 아메리카 지역에는 이제 6개의 성전이 운영, 발표, 또는 공사 중이다.***

이 성전이 완공되면 중앙 아메리카에는 여섯 개의 성전이 있게 되며, 12개의 선교부, 약 100개의 스테이크에 거주하는 거의 60만 명의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07년 11월 24일자 처치 뉴스에서 발췌***

## 기술 전문가들을 돕기 위한 웹 사이트

스테이크 기술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부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충 도움을 받기 위해 온라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LDS.org의 일부분으로 시작된 이 사이트는 이 회원들이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많은 과제들에 대한 문제 해결 솔루션을 제공한다.

"우리는 이 전문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라고 교회의 정보 통신 시스템부의 프로그램 관리자인 빌 부시 형제는 말했다.

일반적인 임무와 관련된 수백 개의 기사가 있고, 여기에는 위성 전송 받기, 컴퓨터 기록 컴파일 및 유지 관리, 해당 시스템이 구현된 국가를 위한 선교사 온라인 추천 시스템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가 있다. 기술 전문가가 수행할 역할과 책임 요약뿐 아니라 편지와 방송 정보의 PDF 버전도 이 사이트에서 접속할 수 있다.

기술 전문가들이 보내는 이 사이트에 대한 의견을 환영하고 있다. 부시 형제는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이트는 현재 영어와 스페인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독일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로 번역 중에 있다. 이 사이트는 staketech.lds.org에서 접속할 수 있다. ■

## 2008년 4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회 지도자들이 2008년 4월호 리아호나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친구들의 친 4쪽과 친5쪽에 있는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그들의 말을 따르라"를 참조한다.*

1. 복음 그림 패킷 102(방주를 지음)와 520(고든 비 힝클리)을 보여준다. 선지자 노아와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을 비교하고 대조해 본다. 비록 노아의 가족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많은 교회 회원들이 힝클리 회장님의 몰몬경을 읽으라는 권고에 귀를 기울였음을 어린이들이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감독이나 지부 회장의 승인을 받아 한 가족을 초청하여 몰몬경을 읽음으로써 선지자의 말씀에 따른 경험을 나누게 한다.

어린이들이 니파이후서 32장 9절을 찾도록 도와준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라는 구절을 암기한다. 기도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배운다. 몰몬경과 기도의 힘에 관하여 간증한다.

2. *초등회 3* 제8과를 사용하여 "예언자 따라" 미로를 만든다. 미로의 각 그림을 별도의 종이 위에 확대한다. 어린이의 그림을 칠판의 왼쪽 위에 놓고, 구주를 나타내는 그림은 칠판의 오른쪽 아래에 놓는다. 다른 그림들은 교실 주변에 놓는다. 별도의 종이 위에 각 그림에 해당하는 구절을 적는다.

"예언자 따라"(*어린이 노래책* 58~59)의 9절을 부르고,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선지자를 따르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들어보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선지자는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준다고 가르친다. 우리가 그를 따르면 우리는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

한 어린이에게 답을 고르도록 한다. 그 어린이의 반원과 교사에게 다른 어린이들이 짐작할 수 있도록 답을 몸짓으로 연기해 보도록 한다. 한 어린이가 정답을 말하면 그에게 교실에 있는 그림 중에서 일치하는 것을 찾게 한다. 그 그림을 칠판에 놓고, 그 어린이의 그림으로부터 구주의 그림까지 인도한다. 칠판에 각 그림을 놓은 다음 "예언자 따라"의 후렴구를 부른다. 계속해서 정답을 몸짓 연기한 다음 모든 정답을 짐작할 때까지 그림을 칠판에 놓는다. 선지자를 따름으로써 오는 축복에 대해 간증한다.

*나이가 든 어린이들:* 정답에 해당하는 경전 구절을 선택한 다음, 정답에 대한 참조 성구를 적는다. 어린이들에게 해당 참조 성구를 찾게 한 다음 정답을 몸짓 연기하기 전에 경전 구절을 읽게 한다.

3. *노래 발표:*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찬송가* 6장). 첫 소절을 허밍 또는 반주한다. 어린이들에게 전에 이 찬송가를 들어본 적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라고 한다.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이란 구절을 함께 나누고, 이 찬송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을 묘사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 감사를 드릴 기회가 됨을 설명한다. 어린이들에게 이 찬송가에 대해서 알고 느끼는 것에 대해 나누도록 한다.

찬송가 책을 들고 이 찬송가를 찾는 것을 보여준다. "밝게"란 단어는 이것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묘사하는 데 사용됨을 지적한다. 반주자가 첫 소절을 연주할 때 4분의 4박자로 박수를 쳐서 어린이들이 리듬을 느껴보도록 도와준다. 그런 다음, 어린이들에게 첫 소절의 리듬을 박수로 쳐보도록 한다. 반원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 한 그룹은 일정한 박자를 박수로 치도록 하고 다른 그룹은 멜로디 행의 리듬을 박수로 치도록 한다. 편을 바꾸어 반복한다.

이 찬송가의 단어들을 가르칠 때 어린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과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들어보도록 한다. (예: 복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지자, 등)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축복을 받았으므로 해야 하는 것들을 묘사하는 구절들을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예: "즐겨 주의 일하고" 및 "계명 힘써 지키나이다")

모사이야서 2:41을 함께 나눈다.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고 행복함을 간증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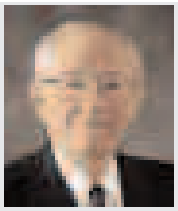
# 학습에 관한 도약

마이클 엘 로빈슨, "학습에 관한 도약," *엔사인,* 1994년 4월호, 72~73쪽

놀랍게도 높은 비율의 취학 아동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 장애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장애는 아니다.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배우는 법 자체를 배우지 못했기에 학교에서의 과정을 감당하지 못한다. 사실 학습, 그 자체는 미리 생각하고, 연습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하나의 기술이다. 학습 기술에 관한 몇 가지 기본적인 학습 원리들을 이해하며,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고 집중하고자 하는 부모는 어린 자녀들에게 고귀한 선물, 즉 학습 능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습 장애에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동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순한 공식이란 없다.

그러나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여러분은 그 자녀가 개념, 시각 및 청각적인 면에서 발전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한 활동들에 관해 논의하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교수 원리들을 살펴보자.



### 여섯 가지 우(6B)

**두 번째:** 우리는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경쟁이 심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이 경쟁입니다. 여러분은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모두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희생하십시오. 세상의 일을 하는 데 자격을 갖추기 위해 희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희생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가치만큼 보상할 것이며, 여러분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교육을 받고 유능해진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0쪽

**첫째, 학습이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임을 기억한다**

우리는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경험한다. 어린이의 학습 능력은 그가 세상과 세상의 모양, 크기, 색깔의 폭넓은 다양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얼마간의 자유를 가져보지 않는 한 결함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은 30분에 한 번씩 냄비들을 찬장에 도로 집어넣거나, 깨지기 쉬운 장신구들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거나, 어머니를 성가시고 지치게 하는 수 차례에 걸친 청소를 의미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이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허용하라는 말은 아니다. 탐구는 세상의 인과관계, 사물의 정리 정돈 및 선택에 따른 결과와 같이,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둘째, 학습을 재미있게 만든다**

어떤 지역 사람들은 학습은 곧 고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이다. 어린이는 재미있을 때 훨씬 더 빨리, 효율적으로 배운다. 나는 어린이들이 쉬는 시간에 공기놀이를 하면서 수업시간에 구구단을 외우는 것만큼 수학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운다고 생각한다. 게임, 시각 보조 자료, 견학 및 기타 활동들도 학습을 즐겁게 만들 수 있다.

**셋째, 자녀에게 오감을 모두 사용하도록 가르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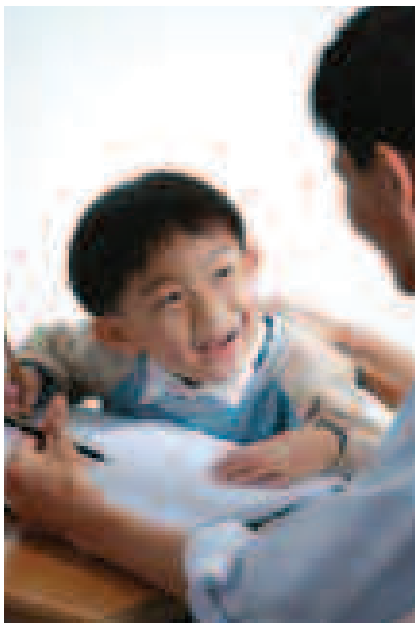
동화책을 읽어줄 때 그림을 보여주고, 글자의 모양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글자 모양을 따라 그려보게 한다. 또는 새끼 고양이를 보고 소리를 들으면서 고양이 털을 만져보게 한다. 냄새 맡기, 만지기, 듣기, 맛보기 및 관찰하기, 이 모든 것은 어린이가 사물에 대한 완전한 개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넷째, 사물의 구체적인 면과 차이점을 지적한다**

천성적으로 어린이들은 구체성과 다양성을 식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들판에 있는 소만 가리키지 말고 옥수수 밭에 있는 황갈색 얼룩 무늬 소를 묘사해 준다. 집 주변의 사물에 구체적인 부연 설명을 덧붙인다. "이 접시는 원이지만, 식탁은 사각형이구나." 혹은 "네 검정 구두를 옷장 바닥에 있는 선반에 올려 놓겠니?" 같이 말이다.

**다섯째,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성공하도록 계획하는 일일 것이다**

실패는 학습의 최대의 적이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공을



느낄 기회를 준다. 공을 잡지 못하면 먼저 베개 잡기를 가르친다. 올바른 발에 구두를 신지 못하면 왼쪽 구두 발에 표시를 해서 아이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본 원리들을 염두에 두면, 여러분은 특정한 학습 분야를 강화해 줄 활동들을 계획할 수 있다. 개념 발전 분야에서는, 양말 분류하기와 같은 활동이 어린이가 범주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상차림을 돕는 것은 반복되는 양식을 볼 수 있게 해 준다. 간단한 조리법을 배우는 것은 순서의 감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연장을 치우거나 정원의 잡초 제거를 돕는 것은 어린이가 구분하고 조직하는 것을 돕는다.

시각적인 기능은 어린이가 크기, 모양, 혹은 색깔의 차이점을 파악하도록 돕는 그 어떤 활동들로도 촉진될 수 있다. 새 관찰하기나 정원 가꾸기와 같은 취미는 훌륭한 시각 활동이다. 슈퍼마켓에서 특정 물품을 찾는 것도 어린이의 시각적 인지능력에 도움을 줄 것이다. 색칠하기와 페인트 칠하기 같은 시각 및 운동 기능을 연합하는 활동들은 어린이가 협응력을 발전시키도록 도우므로 특히 효과적이다.

여러분의 집과 이웃에는 자녀의 청각적 인지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소리로 가득 차 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저건 초인종 소리니? 아니면 오븐 타이머 소리니?" "저건 아빠가 계단을 올라오시는 소리니? 아니면 누나 소리니?" 여러분은 이 분야에 도움이 되는 게임을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이의 눈을 가리고 여러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맞추게 한다.

다른 가치있는 성취들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게 준비하는 데에는 시간, 인내 및 사랑이 필요하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지속적이고 민감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그 대가는 값을 매길 수 없다. 실제로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

**마이클 엘 로빈슨, 알파인 학군 정보화 담당관 겸 작가 및 유타 주 교도소 후기 성도 상담 전문가**

(Provident Living[검약하는 생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

## 애독자 사연

저희 부부에게는 네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희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거나 과외를 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자녀들의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집안에서, 그리고 일상 생활 속에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나, 가정의 밤을 할 때, 그리고 교회를 오갈 때 등 모든 순간마다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질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답해 줍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책들을 자주 읽어 줍니다. 저희는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자녀를 가르쳤을 때, 그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한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부산 스테이크에서 익명의 독자가*

##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다음 호 복지 기사인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의 중요성"*과 관련된 여러분의 사연을 아래 주소로 2008년 4월 25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성동우체국 사서함 22호 한국 관리 본부
*리아호나* 담당자 앞(우편 번호 133-600)
팩스: 02-2235-1395
이메일: JeonGW@ldschurch.org(전건우)
문의 전화: 02-2232-1441(내선 번호 564)

#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회장의 담화문

*2008년 1월 27일 저녁 7시에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향년 97세의 나이로 서거했다.*
*이에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북아시아 지역 회장이 담화문을 발표했고, 그 전문을 지역 소식에 싣는다.*

오늘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이 서거하셨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픕니다. 힝클리 회장님께서는 교회가 크게 성장했던 지난 수십 년간 이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한국과 일본 및 아시아 전역의 회원들을 사랑하셨으며, 선지자로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이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내셨으며, 우리는 그분에 대한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교회의 위대한 선지자요 회장이셨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북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 회원들을 대신하여, 우리는 그분의 가족과 그분을 사랑했던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애도의 뜻을 전하며, 동시에 이 위대한 사업의 참됨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간증을 더합니다. 우리는 힝클리 회장님을 많이 그리워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분에 이어 부름 받으실 분들을 통해 계속하여 교회를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

# 폴 폴라이 박사와의 음악 노변의 모임

2008년 1월 22일 서울 남 스테이크 동작 와드에서 세계적인 피아노의 거장이자 '지나 바하 국제 피아노 재단(Gina Bachauer International Piano Foundation)'의 총책임자인 폴 폴라이 박사(Dr. Paul Pollei)와의 음악 노변의 모임이 열렸다. 독실한 후기 성도이자 뛰어난 음악가인 폴라이 박사는 BYU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으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또한 '지나 바하 국제 피아노 재단'에서 주최하는 콩쿠르를 통해 피아노를 사랑하는 젊은 예술가를 발굴해 내고 있다.

평일 저녁이었음에도 많은 회원이 참석한 폴라이 박사와의 음악 노변의 모임은 한국인 제자 두 명의 연주로 진행되었다. 먼저 안양 스테이크의 최선빈 형제가 간증과 함께 연주를 들려주었다. 때로는 감미롭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변하는 최선빈 형제의 연주는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의 마음과 귀를 사로잡았다. 최선빈 형제의 간증과 연주가 끝난 후 무대에 오른 사람은 폴라이 박사의 또 다른 애제자, 손민주 자매였다. 부드럽게 시작한 손 자매의 연주는 듣는 이의 마음을 흔들었고, 건반이 부드럽게 울릴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 또한 편안하게 바뀌었다. 두 제자의 연주가 끝난 후에는 폴라이 형제와 함께 한국을 찾은 재단 매니저 캐리 빌링스 형제의 간증이 이어졌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줄곧 모터 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우연한 계기로 피아노에 흥미를 붙여 전공까지 하게 된 사연을 재미있게 들려주었다.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른 폴라이 박사는 자신이 음악을 하게 된 이야기와 대학 시절 함께 했던 동료이자 현 태버내클 부지휘자와의 학창시절 일화를 들려주었다. 그러면서 폴라이 박사는 "우리가 소망하고 노력한다면 나중에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 〈기사, 사진 제공: 형상일 기자〉

# 십이사도 정원회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 내한

*2008년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십이사도 정원회의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 내외가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회장과 에번즈 자매가 동행하는 가운데 한국을 방문했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최윤환 장로 내외와 함께 마산과 부산, 그리고 순천 지역을 오가며 그들이 전한 사랑과 감동의 메시지는 성도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3박 4일간의 그 발걸음을 되짚어 본다.*

*마산 스테이크 노변의 모임을 마친 뒤 회원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옥스 장로*

**2월 21일 마산 스테이크 노변의 모임**

멀리 대구에서도 왔다. 주님의 사도가 방문한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21일 저녁, 마산 와드에서 있었던 옥스 장로 방문 특별 노변의 모임은 비단 마산 스테이크 뿐 아니라 대구 스테이크에서도 몇몇 회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옥스 장로가 지나가는 길마다 열렬히 손을 흔들었던 그들은 "단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마산 스테이크 회원들도 아침 일찍부터 모임 준비를 하고, 몇 주에 걸쳐 합창 연습을 하는 등 옥스 장로를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모임 시간인 저녁, 드디어 모습을 보인 옥스 장로 내외와 에번즈 회장 내외, 그리고 최윤환 장로 내외가 마산 와드 예배실로 들어섰다. 모임 시작 30분 전부터 기도와 찬송으로 기다렸던 회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들을 환영했다.

첫 연사로 선 에번즈 회장은 선교 사업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그는 "선교 사업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며 선교 사업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배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더불어 선교 사업을 꿈꾸는 청년 독신들에게 "그것에 대해 부모님과 감독님과 이야기 하십시오."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그 말씀 뒤로 한 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가십시오."

에번즈 회장의 말씀이 끝난 뒤 옥스 자매가 연단에 섰다. 옥스 자매는 정확한 발음으로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한 뒤 "선교 사업은 일종의 교육"이라며 에번즈 회장에 이어 선교 사업에 대해 말씀했다. 그녀는 "교회가 없는 삶은 방어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씀하며 말씀을 마쳤다.

마지막 연사로 연단에 오른 옥스 장로는 백발이 성성한 나이가 무색하게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을 전했다. 옥스 장로는 말씀을 시작하며 "이 마산 스테이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옥스 장로는 특별히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이 교회는 가정에 기초를 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씀 한 그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치십시오."라고 권고했다. 또한 "교회에서의 가르침은 가정에서의 가르침을 돕기 위해서이지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옥스 장로는 마지막으로 계시와 인도에 대해서 말씀하며 "이 교회는 하나님께 닿는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차적인 통로로 선지자에 이르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도를 통한 직통로입니다."라고 가르쳤다.

**2월 23일 부산 스테이크 대회 신권 역원 모임 및 토요 저녁 모임**

22일 하루 동안 부산 선교부 대회에 참석했던 옥스 장로의 일정은 23일에도 멈춤이 없었다. 부산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한 옥스 장로와 최윤환 장로는 주님의 사업을 강화하고 개인의 영성을 고취시키는 여러 말씀과 가르침을 부산 지역의 회원들에게 전했다.

23일 스테이크 대회 신권 역원 모임에서 최윤환 장로는 "신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했다. 그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며 "제 개인적인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하는 신권 형제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해야 합니다."라고 전하며 힘차게 말씀을 마무리했다.

뒤이은 토요 저녁 모임에서 옥스 장로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복음도 아니고, 상호부조회도 아니고, 와드나 지부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와 선지자의 간증이 우리 교회의 근간"이라는 원리를 가르쳤다.

*옥스 자매가 선물한 간증 장갑을 끼고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한 부산 스테이크 초등회 어린이들. 왼쪽부터 박의영, 박나영, 이민하, 박소영*

**2월 24일 부산 스테이크 일요 총회**

부산 스테이크 대회 일요 총회는 주님의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 든 회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대회 장소인 수정 와드를 향해서 아침 일찍부터 출발한 먼 지역의 회원들과 한 시간 먼저 도착해서 모임 준비를 한 가까운 지역의 회원들 모두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찼다. 입추의 여지없이 빼곡하게 들어 선 회원들 사이로 걸어 들어온 옥스 장로는 참석한 회원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며 사랑을 전했다. 옥스 장로와 직접 악수를 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회원도 있었고, 두 손을 꼭 쥔 채 하염없이 흔드는 회원도 있었다. 악수를 마친 뒤 연단에 오른 옥스 장로는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뒤이어 모임이 시작되었다. "고통과 시련 또한 주님의 축복"이라는 이순철 부산 스테이크 회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부산 스테이크 회장단의 말씀이 끝난 뒤 부산 스테이크 합창단의 우렁찬 음성으로 '굳도다 그 기초'가 울려 퍼졌다. 합창 뒤에 연단에 선 최윤환 장로는 구도자와 신회원들에게 "오늘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주 아름다운 결정입니다."라고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저는 한 번도 이 복음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며 뜨거운 간증을 전했다.

최윤환 장로의 뒤를 이어 연단에 선 옥스 자매는 '간증 장갑'을 낀 초등회 어린이들을 연단으로 불렀다. '간증 장갑'은 옥스 자매가 손수 부산 지역의 초등회 어린이들에게 전한 선물로 장갑을 낀 채 자신의 간증을 전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웠다.

이날 모임의 마지막 연사였던 옥스 장로는 "오늘 이 모임에서 아주 큰 기쁨을 느낍니다."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했다. 그리고 부산 스테이크 대회의 독특함으로 "매우 조용하다"는 점을 꼽으며 영적이고 성스러운 분위기에 찬사를 보냈다. 옥스 장로 역시 모임에 참석한 구도자들에게 따뜻한 말씀을 전했다. 그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사랑하는 만큼 구도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며 "저는 이것이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간증했다. 또한 모든 회원들을 향해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진 가족이나 친구가 있더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씀했다.

일정을 마치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옥스 장로는 공항까지 배웅 나온 회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떠남을 아쉬워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손을 번쩍 들어올렸다. 그 힘찬 몸짓 속에 세월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비행기에 오르는 옥스 장로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과 간증으로 무장한, 주님의 사도 그 자체였다.

*옥스 장로를 환영하기 위해 공항에 나온 부산 스테이크와 마산 스테이크 지도자들, 그리고 초등회 어린이들*

**2월 23일~24일 순천 지방부 대회**

한편, 22일 오전까지 옥스 장로와 함께 한 후, 순천으로 향했던 에번즈 회장은 순천 지방부 대회를 감리했다. 23일과 24일 양일간 순천 지방에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다. 하지만 날카롭게 부는 바람도 지방부 대회를 향한 회원들의 뜨거운 마음을 꺾지는 못했다. 토요 저녁 모임에서 연단에 선 에번즈 회장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부름과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했다. 그는 "신권 지도자는 영감을 구하여 부름을 주어야 하며 회원은 주어지는 부름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는 신앙으로 자신이 설혹 부족하다고 여겨지더라도 결코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름을 갖고 있는 동안 매일 끝없이 그 직에 더욱 적합해지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영을 고양시키는 에번즈 회장의 말씀은 일요 총회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때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수십 년 동안 천여 명의 회원들에게 부름을 주워 온 증인으로서 초등회 교사든, 지부 회장이든 모든 부름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간증했다.

모임에 참석한 순천 지방부의 최민희 자매는 "복음을 가르칠 사람을 당장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교 5학년인 김현지 자매는 토요 저녁 모임에 다녀온 어머니로부터 에번즈 장로님이 어떻게 8명의 자녀를 낳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들었다며 "아이를 키우는 일은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너무나 대단하다"며 큰소리로 활짝 웃었다. 순천 지방부의 회원들은 대회 내내 주님의 영이 임재하심을 느꼈고, 에번즈 회장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

〈기사 제공: 권정미 기자, 김민정 기자, 조연화 기자〉

*순천 지방부 대회에 참석한 에번즈 회장과 패리튼 대전 선교부 회장 내외와, 그리고 순천 지역의 선교사들과 회원들*

## 사랑의 다리 잇기 휠체어 기증식

*휠체어 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는 최윤환 장로와 교회에 감사를 표한 이세웅 대한적십자사 총재*

2008년 2월 29일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교회가 휠체어 500대를 전달하는 '휠체어 기증식'이 있었다. 2003년부터 계속되어 온 휠체어 기증은 전국의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의 인도주의 프로그램이다. 이날 기증식에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최윤환 장로와 복지 선교사인 김용일 장로, 공보 선교사인 젠슨 장로 부부, 그리고 공보위원회 위원장인 최석구 형제가 함께 했다. 최윤환 장로로부터 기증서를 전달받은 대한적십자사의 이세웅 총재는 "지금까지 기증 받은 1,800여대의 휠체어는 유용한 곳에 잘 전했다."며 감사의 말과 함께 감사패를 전했다. 또한 그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감사패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이아몬드는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보여준 사랑과 봉사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했다.

최윤환 장로는 이날 기증식에서 "자신이 일을 해서 얻는 것으로는 생계를 유지하지만, 자신이 베푼 것으로는 삶을 가꿉니다."라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사랑과 봉사, 그리고 베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윤환 장로는 마지막으로 "돈으로 베푸는 것도 아름답지만 시간을 희생해서 봉사를 베푸는 것은 더욱 아름답습니다."라고 말하며 기증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우리 교회의 가치관과 사명을 전했다. ■

#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공보 선교사로 봉사하는 젠슨 장로 부부*

*두 사람은 한국과 인연이 깊다*

2008년 3월부터 마우어 장로 부부의 뒤를 이어 새로운 공보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젠슨 장로 부부는 한국과 인연이 깊다. 이미 지난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서울 서 선교부 회장으로 한국에서 봉사했고,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62년에 젠슨 장로가 전임 선교사로 한국에서 봉사했기 때문이다. 2007년 11월에 공보 선교사로 부름 받은 젠슨 장로는 20여년만에 다시 찾은 한국이 "무척 반갑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교회를 알리는 일은 어렵지만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므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런 다음 젠슨 장로 부부는 한 목소리로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공보 사업을 위해 "한국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한국에서 공보 선교사로 봉사했던 마우어 장로 부부는 한국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한국에 대한 애정과 선교 사업에 대한 열정을 숨기지 못했다. 어느 비오는 여름날 성전 문 앞에서 크게 넘어진 후,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으며 누운 채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군요!"라고 중얼거렸다는 마우어 자매. 그녀는 선교 사업 내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다며 환하게 웃었다. 마우어 장로는 그런 아내를 보고 있다가 조용히 한 마디를 덧붙였다.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용기를 내야 한다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이 축복"이라고 말했던 두 사람은 1년 6개월 전 한국을 찾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한국을 떠났다. ■

## 지역 단신

***주:*** *지역 단신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 **www.lds.or.kr** *의 '회원과 방문자를 위한 소식'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스테이크 〈곽채림 기자〉**

세미나리 졸업식 – 지난 2008년 2월 23일 토요일 서대문 와드에서 배동철 회장의 감리로 서울 스테이크 세미나리 졸업식이 열렸다. 서울 스테이크의 세미나리를 참석하는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님들과 동 종교 교육원 이재훈 형제가 참석해 청소년들을 축하해 주었다. 총 15명의 청소년들에게 세미나리 증서가 발급되었다.

**서울 강서 스테이크 〈김연학 기자〉**

초등회 용기반 영어 활동의 날 – 지난 2008년 2월 23일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초등회 용기반에 해당된 회원과 구도자 어린이 54명, 초등회 역원 및 전임 선교사 등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사용하는데 자신감을 심어주고, 회원과 구도자 어린이들이 전임 선교사들과 친해지도록 영어 활동모임을 가졌다.

**서울 동 스테이크 〈이지은 기자〉**

합창 대회 – 지난 2008년 2월 23일 서울 동 스테이크 길음 와드에서는 동 스테이크 회원들이 함께 한 합창 대회가 있었다. 이 날에 도봉 와드 합창단은 찬송가 "아름다운 세상"을 고운 음성으로 들려준 다음 지휘자와 합창단이 하나되어 무반주로 "소나무 "를 들려주어 이색적인 시도를 하였고 노래, 복장, 분위기 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강서 스테이크**
발산 와드가 방화 와드로 이름이 바뀜
화곡 와드 감독: 전경일(전임: 이재훈)

**마산 스테이크**
거제 지부 지부 회장: Dan Patrick Mcwiggins(전임: Mckinley N. Patrick)
창원 와드 감독: 이용재(전임: 임준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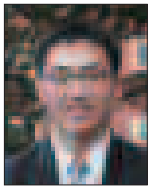
**부산 스테이크**
광안 와드 감독: 문경호(전임: 정용환)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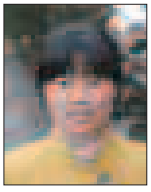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287기 15명/해외 5명**

강지훈 장로
서울 영동 스테이크
성남 와드
캘리포니아 엘에이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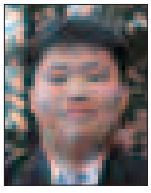
박훈민 장로
서울 동 스테이크
길음 와드
대전 선교부



고홍순 장로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이문 지부
대전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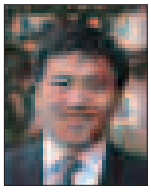


방애라 자매
부산 스테이크
해운대 와드
서울 서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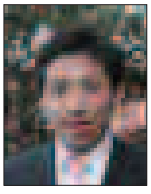


권기헌 장로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동대문 와드
부산 선교부

백승익 장로
안양 스테이크
금천1 와드
대전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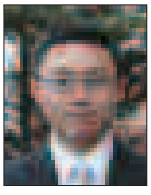


권오준 장로
마산 스테이크
통영 와드
서울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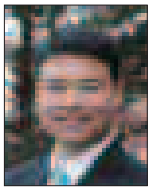


백인우 장로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
대전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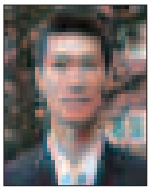
노순구 장로
제주 지방부
제주 지부
서울 선교부



안민 장로
서울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
대전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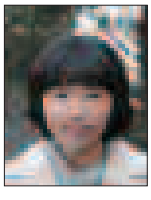
류기욱 장로
수원 스테이크
신갈 와드
부산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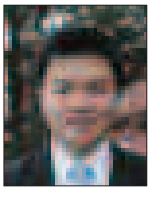
유영호 장로
전주 스테이크
정읍 와드
서울 서 선교부

민광준 장로
대전 스테이크
선화 와드
워싱턴 시애틀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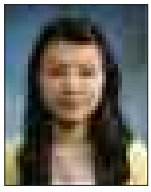
이동주 자매
울산 지방부
신정 지부
템플 스퀘어



박성혜 자매
광주 스테이크
충장 와드
서울 선교부



이선기 장로
대전 스테이크
공주 와드
부산 선교부



조현정 자매
서울 강서 스테이크
개봉 와드
템플 스퀘어

최정훈 장로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
서울 서 선교부

지영하 장로
대전 스테이크
둔산 와드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선교부

하영수 장로
서울 북 스테이크
일산 와드
대전 선교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한국 취업 센터

### "교회의 한글 홈페이지에 채용정보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도와서 회원의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한국 취업 센터'는 다음과 같이 교회의 한글 홈페이지에 채용 정보를 소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lds.or.kr/교회조직/취업센터/채용공고

**이곳에는 다음과 같은 채용 정보가 실릴 예정입니다.**

1. 교회 조직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2. 교회 회원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3. 교회 회원이 다니는 직장의 채용 기회를 회원에게 소개할 때.
4. 교회 회원이 추천하고 싶은 직장을 소개할 때.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회의 홈페이지에 직장을 소개하려는 회원은 양식 '채용정보'를 작성하여 취업 센터로 보내주십시오. 양식은 감독, 지부 회장, 스테이크 취업 전문가 또는 취업 센터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2. 접수한 채용 정보는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홈페이지에 소개하기까지 약 3~5일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3. 교회의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채용정보'는 정보를 소개하는 것이며, 취업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취업하는 본인과 채용하는 조직에 있습니다.

한국 취업 센터
전화: 02-2232-1441(내선 365)
팩스: 02-2237-3995
휴대 전화: 010-9203-2639